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우리 땅, 독도를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 더 큰 세상을 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대응 방안
박근혜정부 교육개혁 성과를 말하다
신선한 청렴문화운동 이끄는 교육부 감사관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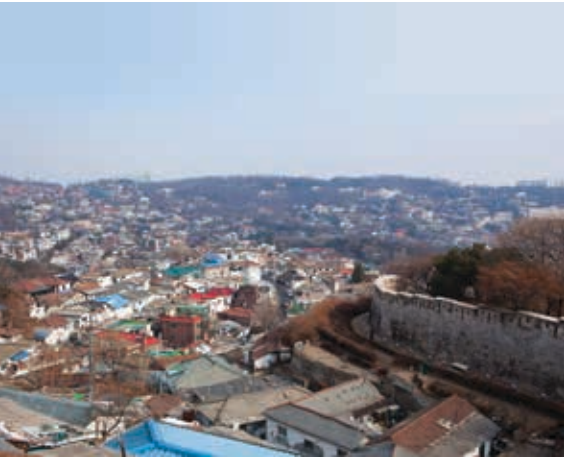
04



08



13



74

현장 이야기

정책 이야기

정보 이야기

교양 이야기

- 02
- 꿈이 영그는 현장
대전천동초등학교
- 08
- 삶과 교육
배준영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12
-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이야기’
- 16
- 이런 수업 어때요_중등
인문계고 하브루타 적용기
- 20
- 에너지충전소
전북 NIE연구회 / 통영교사품물연구회
- 22
- 화제의 교사
안승준 한빛맹학교 교사

- 기획
- 세계시민교육으로 더 큰 세상을 품다
- 26
- 젊음이여, 세계를 보라
- 2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 30
-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교사가 앞장 선다
- 32
- 세계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 34
- 세계와의 소통, 나도 도전해 볼까
- 36
- 시도교육청 플러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든다 / 대구 / 전남 / 부산
- 40
- 초점
박근혜정부 교육개혁 성과를 말하다
- 46
- 클릭, 교육부
신선한 청렴문화운동 이끄는 교육부 감사관실
- 48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_전남 아산초
- 52
- 청년들에게 꿈을
직무에 딱 맞는 인재를 기르는 NCS 기반 교육과정
- 54
- 정책카툰
이공분야 기초연구 ‘연구자 맞춤형’ 지원 추진

- 교육논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대응 방안
- 5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
- 58
- 미국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대응 시스템
- 60
- 핀란드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대책
- 62
- 학교 밖 학교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 64
- 학급경영노트
새 학급은 ‘여럿이 함께’ 하는 배움·성장의 공동체
- 66
- 자녀교육 Q&A
‘잔소리’ 잘 하는 기술
- 68
-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미국,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에 주목
- 70
- 생각나눔
새 학년, 새 학기 나만의 친구 사귀기 노하우
- 72
- 2016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출범

- 74
- 일상의 씬표
서울 하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
- 78
- 뉴스브리핑
자유학기제 왜곡 광고 자제 학원총연합회에 당부 외
- 80
-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피자만담



Vol. 404
March 2016

COVER STORY

대전복수교(교장 송석웅) 유네스코 동아리 ‘팩스누리’ 학생들이 ‘프리허그’ 캠페인을 하며 친구들에게 따뜻한 품을 나눠주고 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천동초의 예술교육은 아이들의 표정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꿈을 향한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자원이 되었다. 아이들은 함께 뮤지컬을 공연하고 앙상블을 연주한다. 책을 읽고 조출한 연극무대를 준비하고, 재미있게 읽은 책을 가까운 친구·선생님과 소통하며 성장한다. 천동초 아이들의 표정이 봄꽃처럼 ‘활짝’ 피었다.

대전천동초등학교

‘예술’과 놀고 배우니 인성이 쑥

포기하지 마세요~ ♪

우리 할 수 있어요~ ♪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멋진 우리 솜씨를 뽐낼 수 있을 거야~ ♪

대전천동초(교장 성수자) 뮤지컬
단원들이 강당 무대에 올
랐다. 복장을 갖추고 무대
에 오른 아이들은 “어떤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무엇이
든 할 수 있다.”는 메
시지를 전달하며 춤
과 율동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

예술교육의 힘 ‘아이를 성장시킨다’

2013년 교육부의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뮤지컬 동아
리는 대전의 유일한 초등 뮤지컬 동
아리로 아이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지난해에
는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경진대
회에서 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학생

들과 학부모의 뮤지컬에 대한 열기
는 매우 뜨거워 매년 3월 공개오디선
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
된 36명의 단원들은 중부대 뮤지컬음
악과 최현규 교수의 지도아래 주2회
두 시간씩 연기, 안무, 노래를 체계적
으로 배우며 자신의 재능과 끼를 키
워가고 있다. 단원들은 학부모 총회,
학교 설명회, 졸업·입학식 등 교내 행
사는 물론이고 인근 요양원과 지역사회
행사에 초청되어 그 기량을 한껏
뽐내고 있다.

황미숙 교사는 “3년간 뮤지컬 동아
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기량이 높
아졌을 뿐 아니라 단원 간의 팀워크
가 생겼다. 기존단원들이 신규단원에
게 가르쳐주며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
히 하고 있다. 뮤지컬 장르를 통해 학
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고 동시
에 정서순화를 통해 바른 인성함양에
도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뮤지컬 운영 4년차에 접어든
천동초는 지난해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은 마무리되어도, ‘뮤지컬의 메
카’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불태우고 있다. 예술교육의 힘을 경



음악으로 화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앙상블 리더함주부
단원들



01



02



03



05



04

01 천동뮤지컬

02 05 쉬는 시간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교육복지실

03 04 “독서엽서 배달했어요” 매주 수요일 빨간 가방과 모자를 쓰고 찾아가는 학생 우체부

힘한 천동초는 올해에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으로 뮤지컬부서를 신설하여 재능을 갖춘 아이들이 계속 뮤지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은 뮤지컬 동아리 외에도 앙상블 리드 합주부와 1인 1악기 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43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 리드 합주부는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을 만들며 하모니를 이룬다. 교육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앙상블 동아리는 날이 선 아이들의 심성을 어루만지며, 음악으로 화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긍정의 아이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독서엽서 배달했어요”

예술교육 외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애정을 쏟고 있다. 독서 짝 띄우기(1단계)에서 독서 꽃 띄우기(2단계), 독서 열매 나누기(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천동 꿈쟁이들의 행복한 책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독서환경을 다지기 위해 ‘사제동행 아침 20분 독서운동’으로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모으는 것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며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독서엽서’ 프

로그램이다. 책을 읽은 후의 생각과 느낌을 소통할 수 있도록 독서엽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천동초에는 빨간 가방과 모자를 쓴 우체부를 만날 수 있다.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친구나 선생님에게 엽서를 보내면 학생 우체부들이 배달해 준다. 엽서를 받은 아이들은 또 다시 각자의

미 있는 책을 읽고 그 느낌을 담장하는 형식으로 친구들과 나누게 된다. 자연스레 독서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독서엽서는 보내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김승규(5학년) 학생은 “매주 수요일이면 우체통에 가득 쌓인 독서엽서를 각 반에 배달해요. 독서엽서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성수자 교장

INTERVIEW

지난해로 뮤지컬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3년째 뮤지컬 활동을 해오면서 아이들도, 부모들도 뮤지컬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3년차의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방과후 교육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뮤지컬 동아리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뮤지컬하면 떠오르는 학교, ‘뮤지컬의 메카’로 키우고 싶다.

벤치마킹을 위해 학교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교장공모제 운영학교 교장단의 방문 등 많은 곳에서 방문했다. 지난여름에 모스크바 1273학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학교를 다녀갔다. 창의·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어전담교사와 원어민교사의 협력수업을 참관하였다. 아울러 학교의 자랑거리인 학생동아리 뮤지컬과 앙상블 리드합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복지실 등의 학생활동 및 방송실, 시청각실, 학습준비실, 영어실 등의 특별실을 돌아보았다. 미하일 아렉산드로비치 교장은 러시아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매우 만족해했다.

평소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으로 ‘자·덕·체’를 강조하는데, 저는 ‘덕·자·체’라고 읽는다. 초등교육에서 지(智)보다 덕(德)이 앞설 때 마음이 따뜻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길러내 이 사회를 밝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복지학교로 전교생 중에서 20% 학생이 기초수급 가정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뮤지컬 동아리와 앙상블 리드 합주부를 운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다리는 아이들이 ‘우체부 왔다’며 반가워하고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한다. 우체부는 투표로 선정될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살짝 귀띔했다. 매월 우수독서엽서는 시상하고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임기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있다.

오감으로 체험하는 독서교육

학생 독서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

된다. 단순히 책읽기 활동을 넘어 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야기의 해학과 즐거움을 주는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

독서토론, 서점 견학, 작가와의 만남 외에도 직접 대본을 써보고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놀이를 해본다. 윤지환(6학년) 학생은 “전래동화 「주먹

06 07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뤄지는 독서동아리. 그 중에서도 직접 대본을 쓰고 인형을 만들어 무대에 올린 인형극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대본을 쓰고 무대에 올릴 인형도 직접 만들었어요. 바느질 솜씨가 좋지 않아 펠트지에 붙이는 인형이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고 너무 즐거웠

어요.”라고 말했다.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 종종 연습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대역을 해주어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주인공이든 단역이든 함께 모여 연습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연습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책이 정말 좋

“우리학교 방과후 체험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대전천동초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92% 수준.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운영만족도도 90% 수준이라니 그 운영 노하우가 무척 궁금하다. 이 학교는 연2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공개수업 대신 ‘방과후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내 아이가 듣는 방과후 강좌라는 틀을 넘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고, 강좌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험할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0분씩 4교시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희망할 경우 최대 4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강좌도 다양하다. 과학실험에서부터 미술, 요리탐구, 로봇발명, 수학교실, 항공우주 등 운영 중인 강좌가 전체 참여한다. 부서별 특성에 맞춰 체험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배엄마들의 입소문이나 안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체험을 통해 강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 또한 우수강사를 영입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강사선발 시기보다 1주일 앞당겨 선발하고 있다.



아졌어요.” 6학년 김슬기 학생의 설명이다. 학교에 마련된 교육복지실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쉬는 시간이면 이곳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자잘한 다툼이 생겼을 때는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상담신청을 하고 대화모임에 친구를 초대한다. 이곳에서 교육복지사가 중재자가 되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갈

등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대전천동초의 교육과정 속에는 이렇듯 인성교육이 속속 녹아들어 있다. 지난해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로 선정되기도 한 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천동초 아이들의 표정이 봄꽃처럼 ‘활짝’ 피었다. ㉠

특성화고에 재직 중이던 배준영 교사는 발명이 아이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학습에 의욕이 없던 아이들도 뭔가를 비틀고 바꾸고 만들어내는 일에는 재미를 보인 것이다. 그는 94년부터 재직하는 학교마다 발명반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여한 과학발명대회만 해도 100회에 육박하고 입상한 학생수도 200명을 훌쩍 넘는다.



01

배준영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자신감 키워주려 발명교육에 뛰어든 ‘에디슨 선생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인터
넷이 끊기는 알람장치.

오래 써도 끈적임이 묻지 않는 테
이프 커팅 가위.

칼날이 360도 회전해 곡선을 자유
자재로 자를 수 있는 칼.

위기상황에 사다리꼴로 변신하는 빨
래건조대...

일상에 ‘관심’을 더하자 생겨난 물

건들이다. 누구에게나 발명 DNA가
있다고 말하는 배준영(57) 교사는 발
명교육에 앞장서며 ‘에디슨 선생님’
으로 통한다.

발명은 관심입니다

서울에 갔더니 지하철 계단마다 발
치 벽면에 쇠파대가 있더라. 무엇
에 쓰는 물건인지 살펴보니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계단을
손쉽게 오르내리도록 고안해 놓은 장
치였다. 꼭 자전거만 올려놓아야 할
까? 이왕에 설치해 놓은 시설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없을까?

손수레 한가운데 플라스틱 원통을
만들어 끼워 넣으니, 손수레 역시 쇠
막대 위에 척 올려놓고 계단을 쉬이
오르내릴 수 있었다. 배준영 교사에게
발명은 이렇게 생활 속의 ‘불편’을 찾
는 것에서 출발한다.

“발명은 ‘관심’이고 ‘관찰’이며 ‘관
계’입니다. 혹자는 발명이 대단히 머
리 좋은 사람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 넘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여
기는데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에
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로 바뀌
생각하는 것이 발명의 시작입니다.”

그가 발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십여 년 전. 과
학교사인 아내가 과학전시 업무를 맡
게 되자 이를 돕기 시작한 것이 ‘발명
교육’과의 첫 만남이었다.

특성화고에 재직 중이던 배준영 교
사는 발명이 아이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학습에
의욕이 없던 아이들도 뭔가를 비틀고
바꾸고 만들어내는 일에는 재미를 보
인 것이다.

* 배준영 교사는 3월 1일자로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등학교로 발령 받아 근무 중입니다.

01 배준영 교사는 충남기계공업고 발명교육센터에
서 발명 전담교사로 근무하면서 대전시 고등학생
들의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이끌고 있다.

02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양말을 쉽
게 끌어올려 신을 수 있도록 고안한 발명품. 바퀴
가 달려있어 돌아다니면서 올리는 알람시계.

03 발명교실을 꽉 채우고 있는 갖가지 부속재료

- 04 지하철 계단의 자전거 거치대에 올려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손수레
- 05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찾는 것이 즐거운 충남기계공고 발명동아리 학생들
- 06 교사가 힘쓰고 쉬지 아니하면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믿는 배준영 교사
- 07 손잡이에 자외선 장치를 달아놓아 남은 음식 위에 덮으면 살균작용이 되는 투명덮개



어린 시절 성취한 경험이 자신감으로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상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평생토록 ‘나는 그것을 잘 한다’는 행복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발명하거나 그것으로 상을 타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너 참 대단하다’는 칭찬 한마디를 들었다면, 그 경험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자신감의 원천이 되지요.”

그는 94년부터 대전산업학교, 대전전자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기계고 등 재직하는 학

교마다 발명반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여한 과학발명대회만 해도 100회에 육박하고 입상한 학생수도 200명을 훌쩍 넘는다. 배준영 교사 역시 2008년 발명의 날 옥조근정훈장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등 87회에 이르는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 자신감 회복 계기

등교하듯 결석하는 아이를 학교로 다시 불러들인 것 역시 발명이었다. 말쑥꾸러기 4인방을 모아 팀을 만들어 ‘솔라카 경주대회’를 준비했다. 실패에 익숙한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출



전해 준우승을 수상했다. 교문에는 자신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가출을 일삼고 우울증마저 보이던 학생이 솔라카



경주대회 수상을 계기로 발명에 관심을 보이면서 학교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책상 옆에 화분을 놓아두고 매일매일 찾아와 물을 뿌려 달라고 말했지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발명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과학발명대회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도 허다했다. 새벽까지 연

구하고 토론하다가 학생들을 일일이 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배준영 교사 자신은 다시 출근하는 일도 빈번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과학발명공모전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에서 발명이 생활화되도록 시작했던 발명교육은 어느새 타 학교로 확대되었다. 배 교사는 2016년 2월 현재 충남기계공업고 발명교육센터에서 발명 전담교사로 근무하면서 대전시 6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초-중급-고급반 별로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과학체험으로 과학봉사

발명은 소통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배준영 교사는 토요일마다 과학발명교실을 열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발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해마다 대전지역 중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학부모들과 함께 발명수업에 동참하도록 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교육기부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월 1회 3시간씩 과학발명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기수별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체험’ 활동에 나선다. 배준영 교사의 발명교실 교육기부가 학생·학부모의 과학

나눔봉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이다.

배준영 교사는 대전과학동호회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후 봄가을 사이언스데이, 과학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로봇사랑동호회 화장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보육원 등을 찾아 과학발명로봇 교육봉사를 펴고 있다.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을 기르고 싶습니다. 나는 아이들 곁에서 변화를 자극할 뿐,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아이들이지요. 어쩌면 내가 못하는 일을 아이들이 대신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학생은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분야, 특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오직 최선을 다해 힘쓰고 쉬지 아니하면(自強不息),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마트에 가면 주방용품 코너부터 둘러보는 남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면 뭐라도 하나씩 사들고 나오는 남자, 오가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배준영 교사가 아닌지 살펴보시라. 한순간도 ‘생각’을 놓지 않는 배준영 교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놀라운 발명품 가운데 으뜸은 뭘까. 아마도 단단히 닫혀있던 아이들 마음을 연 ‘소통의 열쇠’가 아닐까. ②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생물하면 동·식물만 생각하기 쉽지만 세포수준의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진균계 등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초등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과 전시물 해설을 겸한 양질의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국립생물자원관의 ‘흥미쑥쑥 표본이야기’ 수업을 들여다보자.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이야기’

보고 만지고 느끼는 박물관 표본수업 인기 ‘짱’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들에 발자국이 있다. “누구의 발자국일까?”

국립생물자원관 최정옥 교육강사의 질문에 아이들의 눈이 중앙 모니터에 쏠렸다. 여기저기에서 “고라니요” “멧돼지 아닐까요?” 등등 야생동물들의 이름이 마구 쏟아졌다. 이어진 화면에는 눈 위에 토끼 한 마리가 있다. 그제서야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답을 알았는지, “아~ 토끼요~”한다. 이 토끼의 이름은 멧토끼. 학명은 ‘Lepus coreanus’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사는

생물종이에요. 학명에도 라틴어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이런 걸 고유종이라고 해요. 척추동물이면 서 고유종인 생물은 멧토끼와 제주등줄쥐 단 2개뿐이에요.”

최 강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아이들은 멧토끼의 가치를 새롭게 느낀다.

흥미쑥쑥 표본이야기

지난 2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부모와 함께하는 ‘흥미쑥쑥 표본이야기’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강의실 모니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진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물자원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생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표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게다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희귀한 생물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언제,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기록하는 것이 표본입니다.”

강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면서도 식물이나 몸이 단단한 무척추동물을 건조해 제작하는 건조표본에서부터 알코올과 포르말린을 사용한 액침표본까지 다양한 표본을 보여주며 표본에 얹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학생들은 교육용 표본을 조심스레 손으로 만져보면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01 아이들이 전시실 식물표본에 대해 설명하는 최정옥 교육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방법

운영시기 : 학기 중(토요일), 방학 중(화~토요일)

운영시간 : 11시, 14시

신청방법 : 누리집(www.nibr.go.kr)에서 신청

문의 : 전시교육과 홍보교육팀(032-590-7309, 7162)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됨

전시실 이용방법

관람시간 : 9:30~17:30(동절기 ~17:00까지)

전시설명 : 토요일 11시, 14시

(평일,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3일 전에 홈페이지에 예약 필수)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02



03

생물표본이란?

생물의 몸 전체 또는 일부를 채집해 그 특징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처리한 연구용 재료를 말해요. 생물 표본은 표본 자체만으로도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과거 한반도의 생물지리학 및 생태 환경의 연구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재료입니다. 건조표본, 박제표본, 골격표본, 액침표본, 종자표본, 슬라이드 표본, 생체·조직·DNA표본 등이 있어요.



02 전시실 입구에 놓여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

03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교육용 표본을 조심스런 손길로 만져보고 있다.

04 국립생물자원관 체험 워크북

05 부모와 함께 강사가 들려주는 '표본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들

04



이 수업의 매력은 전시품과 해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전시실의 표본들을 둘러보며, 이곳으로 옮겨져 표본으로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나 표본과 얽힌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생물에서부터 침엽수의 가느다란 잎의 섬세한 느낌을 고스란히 살린 식물표본은 제작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멀리에서 보면 '날고 있는 물고기'들이 보인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노는 거대한 수족관처럼 보이지만 모두 액침표본으로 전시된 것들이다. 전시실에는 흙속에 뿌리를 두고 유리관에 화사하게 피어있는 '미션나무'와 '금강초롱'이 있다. 사람을처럼 느껴져 더욱 정감이 간다.

초등연계 생물 커리큘럼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은 한반도 주요 고유생물, 자생생물 표본 1,480종, 6,041점이 전시되어 있다. 멸종위



05

기생물 사진 및 표본을 다량 전시하고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전시관의 특성에 따라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환경정책의 3가지 주제군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강초롱을 통해 '고유종'과 '자생종'에 대해 알려준다(금강초롱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몰랐던 벌의 세계와 벌이 주는 다양한 선물에 대해서, 자원곤충으로서의 벌의 소중함도 일깨운다(내 춤은 대화야). 탐정이 되어 새의 흔적을 추적하는 '명탐정 새탐정' 프로그램

을 통해 새 이름의 유래, 새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초등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수사관이 된 파리' 프로그램은 산업공학박사, 환경학자, 수사관, 의사 식량학자와 파리의 관계를 통해서 파리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또 휘태커의 5계 분류에 맞게 생물나루를 원핵, 원생, 균류, 식물, 동물로 나눌 수도 있다(알기쉬운 생물분류).

송영은 박사는 "보통 생물하면 동식물만 생각하기 쉽지만 세포수준의 원핵생물이나 원생생물계, 진균계 등 생각보다 범위가 다양해요. 국립생물자원관에는 연구원이 78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요. 초등은 넓고 얇게 생물을 접한다면, 중등 이상 프로그램은 각 분야 연구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어떤 연구를 하는지, 또 연구원의 삶은 어떤지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국의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된 생물자원을 이용해 인류에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여 상업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나고야의 정서-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이 생겨나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표본'은 생물주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시관을 둘러보면, 포유류 표본들이 많이 있어요.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울무에 걸려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죽어가 는 이 생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생물자원을 보존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⑦

Tip



박물관 연계 '초등 생물' 활용 팁!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유일의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으로 한반도 주요 고유생물, 자생생물 표본 1,480종, 6,041점을 전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생각하는 전시관으로 포유류, 조류 등의 전시용 표본은 로드킬, 환경오염 등에 의해 희생된 동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246종의 멸종위기생물 사진 및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초등단계에서 생물 영역은 '식물', '동물', '생태계', '환경' 등을 다룬다. 식물은 광합성이나 증산작용, 줄기의 물의 이동, 뿌리의 흡수작용을 비롯하여, 나무와 풀의 구분, 여러해살이와 한해살이 등을 다룬다. 동물의 경우, 일반적인 동물 분류에서부터 작은 생물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생물'은 실험과 관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영상이나 그림 자료를 대체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

생물의 다양성 교육은 '생태계' 부문에서 생명존중 차원에서 언급하는데, 지도서에도 생물과 관련해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내용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시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겠다.

(도움말_ 대전글꽃초 조현수 교사)

인문계고 하브루타 적용기

생각의 힘을 키우는
질문의 공부



글 김연정
칠곡고등학교 지리교사

하브루타란 짝과 함께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대화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브루타를 적용한 수업의 핵심은 질문이다. 강의가 아닌 학생의 질문으로 수업이 채워진다. 질문은 뇌를 자극하여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생님의 강의를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늘 수동적인 자세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의 힘이다. 하브루타를 실제 교실현장(지리교과)에 접목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고 싶었다. 컨설팅이나 연구수업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보시고 “학생들끼리 질문을 하면 정답은 누가 가르쳐주느냐?”라고 자주 물으셨다. 하지만 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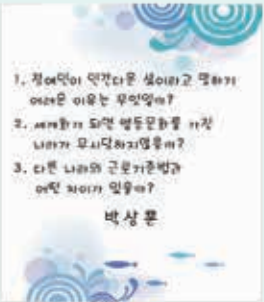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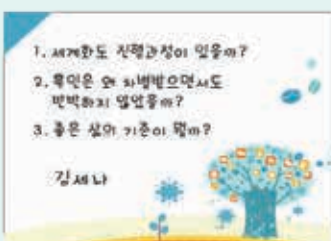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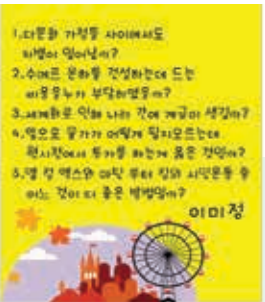
업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화를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자기가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자기주도적 학습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하브루타를 통한 수업은 고등사고력뿐만 아니라 남과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창의력까지 신장할 수 있다. 또한 남을 설득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배려의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기에 학업성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따라서 하브루타 수업

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맥락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하브루타 수업을 위한 4가지 노하우

첫 번째, 질문중심의 수업 구성이다. 30분은 하브루타, 20분은 교과내용 정리를 하였다. 하브루타 자료를 주고 30분 동안은 짝과 함께 질문과 대화를 하고(1:1하브루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교사가 5~6개 선정한 후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하브루타(전체 하브루타)를 하였다. 하브루타 주제는 교과서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단순히 교과서의 지문 4~5문장을 줄 수도 있다. 나머지 20분은 교과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학습지 말미에 정리해두었다. 특히 이것은 각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친구 가르치기이다. 1:1 짝과 함께 소리내서 친구를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이것이 메타인지이다. 메타인지의 활성화로 인한 학습효과는 기존 강의식보다 9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친구를 가르치면서 잘하는 학생은 더욱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도 친구에게 배우게 됨으로써 즐겁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참여도 증가는 물론 학력이 크게 향상



질문전지회(학생작품)



스피드게임



짝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될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 많은 단원이거나 어려운 개념, 혹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차시의 수업에서는 친구 가르치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거의 대부분의 교과 및 학교에서 그렇듯이) 학생들은 그 순간에만 기억을 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구 가르치기(말하는 공부법)를 통해 학습효과가 매우 높아졌으며 그것은 각종 평가에서 결과로 나타나 어떤 학년은 한 반의 50%가 1등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교사 역시 친구 가르치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

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피드백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각종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브루타의 핵심인 질문하기 및 말하기를 통해 스피드 게임, 친구 멘토링, 수행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의 경우 가장 어렵거나 중요한 교과주제를 2~3개 선정하여 교사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 저절로 공부가 되며, 교사는 수행평가 시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다. 고3 수업 혹은 보충 수업, 그리고 중



간·기말고사 직전에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네 번째, 창의활동이다.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은 질문을 10개 이상씩 쏟아내고 친구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한 학



기동안 자신이 쏟아낸 질문을 모아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하브루타 출판기념회), 질문을 모아 액자를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하였다(질문전시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

따라잡기 경연 대회였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처럼 미니수업(5분 내외)을 하는 것이다. 전 과목에서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이나 주제를 정한 다음(예: 지구 내부 구조, 농구 패스 방법 등) 5분 동안 설명(수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학습지를 만들기도 해서 실제 선생님들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참여 학생들이나 앉아서 듣고 있던 학생들 모두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공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이 되기도 했다. 또한 대내상 수여를 통

01 선생님 따라잡기 경연대회
02 선생님 따라잡기 대회 포스터

해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될 경우엔 대학 입학 시에도 큰 이점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하브루타 수업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주신다. 평가는 어떻게 하며, 어려운 점, 혹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역할 등 하브루타를 적용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하브루타를 통한 수업을 계획하시거나 궁금하신 선생님들께 그동안 받았던 질문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Q 하브루타를 적용할 때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구 가르치기의 경우 선생님의 개입 없이 1:1씩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체 하브루타 과정에서 오개념이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 또한 1:1 하브루타 시간에 친구와 나누는 질문들을 순회 지도를 통해 잘 살펴보고 학습 목표와 관련이 높거나 창의적인 질문을 잘 선별하여 전체 하브루타 시간에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사고력과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쳐야 하는 과목이므로 반드시 학습목표와 연관하여 하브루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브루타로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브루타 자료 선정이다.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야 하므로 재미와 학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또한 수능 과목인 만큼 수업진도나 학력 그리고 평가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차시별 필수 학습개념을 반드시 학습지에 넣어야 한다. 그것은 전체 하브루타 시간이 끝난 후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였다. 그래야만 평가를 하고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Q 하브루타 수업을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선생님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개념을 묻는 질문, 반론하는 질문, 거꾸로 뒤집어 보는 질문, 개인의 입장이라고 가정하여 질문하는 것, 미래를 유추해 보는 질문 등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보고 그다음 학생에게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한 다음 하브루타를 시작해야 한다.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고 질문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예: 겨울왕국 이야기에 대한 질문 50가지 만들어 보기, 그림에서 질문 50가지 만들어 보기, 우리학교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기 등). 학생들도 질문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야 한다.

Q 하브루타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까?

가장 좋은 상담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브루타의 경우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몰랐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통해서 듣고 학생과의 소통, 공감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이다. 짝과 함께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경청하고 배려하는 배려의 정신을 수업 내내 가질 수 있었다.

하브루타 수업을 지난 1년 동안 매일 진행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1:1로 맞춰진 짝과 함께 질문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개개인 모두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자기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매 시간마다 쏟아져 나왔고 이것이 학생들의 재미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냈다. 교사는 학생 1명보다는 나를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전체보다 나은 교사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주 질문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좌절을 여러 번 겪어 보는 것이 좋다. 그 과정에서 높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형성되고 그것은 우리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것이다. ㉠

전북 NIE연구회

‘살아있는 교과서’ 신문은 또 다른 교육공간

신문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신문을 활용해 읽기 능력은 물론이고 독해, 주장을 전개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신문을 들여다보면, 교과서 속 내용을 연결해주는 사례가 풍부한 또 다른 교육공간이 되기도 한다.

전북 NIE연구회는 신문활용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이다. “신문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각종 활동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는 NIE(신문활용교육)에 관한 글을 지역일간지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춘주 교사의 설명이다. 매주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제시한다. 자료를 토대로 ‘생각열기’, ‘생각 키우기’, ‘생각 더하기’ 활동을 제시해 학생들이 NIE활동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끝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매주 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신문활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NIE 활동을 펼



친다. 축구에 관심 많은 학생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신문일기로 엮었

다. 신문 기사를 선택해 읽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 뜻을 적고, 관련된 사건을 체계화하여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한다. 관심 있는 감독, 선수, 마케팅 등이 칼럼의 소재가 된다. 이런 학생들의 NIE 활동 자료는 ‘전북 NIE대회’를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8회째 진행하였다. 전북 NIE연구회는 전북 NIE대회를 비롯하여 학부모 NIE교실, 학생 NIE캠프 등도 진행하고 있다.

“NIE를 통해서 교사는 주제 글에 대해 조언을 하고, 탐구질문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가 현실 생활 속에 연결되는 체험을 통해 실제적인 학습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전북 NIE연구회는 올해에도 학생, 교사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매진할 예정이다. 동료 교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 전라북도 지역

대상 : 초·중등 교사

대표 : 이춘주(전북사대부고) 063-270-3551



통영교사풍물연구회 ‘한소리’

우리 가락과 춤 한마당 ‘얼쑤~’

크고 하나된 소리로 서로서로 어울림을 뜻하는 ‘한소리’ 통영교사풍물연구회는 우리 문화에 관심 많은 초·중등 교사들이 모여 우리의 가락과 춤, 노래를 함께 익혀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열혈 선생님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사명감도 남다르다.

“1990년 12월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연수를 매년 해오고 있어요. 호남좌도풍물, 삼천포12차 등 풍물극과 사물놀이로 영남사물, 삼도풍물, 웃다리풍물 등을 배웠어요. 각종 개인놀이로 설장구, 소고춤, 북춤, 상모, 모듬북 외에도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국악교육의 기본이 되는 장구장단, 강강술래 전래놀이, 소금, 단소, 창작판굿 등을 익히고 있고요.”

연구회는 그동안 스물네 번의 정기공연을 선보였다. 풍물한마당은 통영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풍물 공연’으로 이미 유명하다.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판굿 가락을 통해 함께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공연 전날 저녁에는 어김없이



문화마당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는데, 통영 여행객이나 그곳을 지나는 일반인들이 즉흥적으로 풍물 공연에 참여한다.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초청받아 흥을 돋우는 일도 ‘한소리’ 회원들의 몫이다.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풍물놀이 행사, 어린이날 바다축제, 한산대첩제 전야제 등에서 경쾌하고 흥겨운 풍물공연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한소리’ 회원들은 각 학교에서도 ‘풍물동아리’를 맡고 있다. 학생들에게 통영오광대, 승전무, 통영한산대첩제 등 전통문화를 전수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 인기 없고 소외된 아이들이 풍물부에 들어와 제 역할을 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유순주 총무초 교사는 “풍물이라는 것이 원래 모든 사람, 모든 귀하거나 하찮은 것, 모든 만물 소리를 다 아우르는 것이기에, 그 아이들이 풍물의 진면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한소리를 거쳐 간 회원만 100여 명, 모두 국악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다. 올해 25주년을 맞는 ‘한소리’는 우리 가락 우리 춤을 알리는 전도사들이다. ㉠

지역 : 통영, 고성, 거제 지역

대상 : 초·중등교원 및 유치원 교사

대표 : 황기자(상쇠, 죽림초) 055-649-6761

유순주(회장, 총무초) 055-643-2588



안승준 한빛맹학교 교사

‘장애’를 가볍게, 우습게 말하는 장애인쌤

“장애가 개그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승준(36, 시각장애 1급) 한빛맹학교 교사는 ‘장애’를 말하며 웃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는 덤덤하게 혹은 유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자친구가 없어 서럽다’는 남다르지 않은 고민도 털어냈다. 그가 노력을 기울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도 그 연장선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서로 잘 알지 못해 생기는 일일 뿐”이라는 그는 나서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길 즐긴다. 틈틈이 글을 쓰고, 주말·방학 때마다 강연을 다니며, 밴드의 보컬로 노래를 부르는 일은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작위적인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를 통해 우열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가난, 불행, 위기 때마다 장애가 소재로 등장해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부추기기도 하지요. 이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벽을 먼저 허물어 보이는 건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지요.”

아이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교사

2년 전 그가 쓴 글 한 편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온라인 뉴스채널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비너스를 느끼다’라는 제목의 글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장애청년 드림팀’에 뽑혀 해외탐방 중에 겪은 일을 담

“장애학생이 교실에 있다면,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해당 학생이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줬으면 해요.”



은 글이었다. 당시 기고 글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5천 건이 넘는 댓글도 달렸다.

“시각장애를 가진 제게 박물관 견학이란 몇 시간 동안 유리 상자나 더듬다 오는 곳일 뿐 컴퓨터로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색하는 것보다도 못한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국 대영박물관을 견학할 당시 보안관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수천 년 된 문화재를 향한 영국인들의 자존심도 한 시각장애인이 문화재를 감상할 권리보다 앞서지는 못한다.’ 했지요. 그리고 그리스관에 있는 비너스상과 모든 전시물을 손으로 감상할 기회를 주었어요. ‘나라 망신이다’, ‘보이지 않는데 감상이 돼?’ 등 악플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부터 안 교사는 주기적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글을 기고하는 한편, SNS를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경험을 얘기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대형놀이공원 L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사건 때도 그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공식 답변을 끌어냈다. 2007년 시행의 결실을 맺은 공무원시험 점자시험지도 그와 함께 노력한 이들이 일궈낸 성과였다. TV퀴즈쇼는 물론, 뉴스앵커 선발 시험까지 다방면으로 도전을 쉬지 않는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능 TV프로그램에도 꼭 나가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돼요.’라는 말을 자주 듣죠. 장애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알아봐주는 일이에요.”

장애를 딛고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길

그는 7인조 음악밴드에서 보컬도 맡고 있다. 교회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연간 3~4회에 걸쳐 정기 공연도 갖는다. 현재 15곡에 이르는 자작곡들의 작사는 모두 안 교사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작위적인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를 통해 우열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벽을 먼저 허물어 보이는 건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지요.”



의 작품이다. 술에 대한 예찬(?),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부터 장애를 통해 겪는 일들에 대한 솔직한 감정까지 다채롭다. ‘할 수 없는 일보다 장애를 가진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자전적 내용은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눈을 가린다든지 하는 일회성 장애체험은 사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신체적인 불편함은 장애 초기에만 겪을 뿐 장애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그가 시력을 잃은 건 13살 때였다.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였다. 세계 수학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던 그는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특수학교 수학교사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렵다는 미적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형, 그래프 등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나름의 수업 노하우도 쌓았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칠 수 있기에 그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장애학생이 교실에 있다면,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해당 학생이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줬으면 해요. 지금도 저는 제 심장이 뛰는 일을 찾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교육자로서 모습이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지요.”

기획

세계시민교육으로 더 큰 세상을 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GCED)이 확산된다. 국내 교육환경에 맞춘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모델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개발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가 지원된다. 인류애와 세계적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참된 글로벌인재의 미래를 그려본다.

젊음이여, 세계를 보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교사가 앞장 선다

세계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세계와의 소통,
나도 도전해 볼까



한비아 세계시민학교 교장

젊음이여, 세계를 보라

청소년 여러분에게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2016. 2.16

Biya Han

“세계지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었죠.”

‘바람’처럼 지구를 걸어 다니는 오지여행가. 일명 ‘바람의 딸’로 불리는 한비아(58) 세계시민학교 교장은 인생을 바꾼 첫 키워드로 주저 없이 ‘세계지도’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옆에 두고 항상 보아 온 지도 한 장이 “세계를 무대로 사는 사람”을 꿈꾸게 했다고 한다.

“세계지도를 한 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전 대륙의 270분의 1에 불과해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지요. 더 넓은 세상,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바로 내 무대인 거죠.”

세계시민학교는 그의 이러한 뜻을 담은 국제 NGO 단체 월드비전의 활동이다. 지구 밖 사람도 내 이웃이 되는 세계시민을 위한 노력, 그가 현재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이다.

더 크게 더 멀리 보고 꿈을 꾸라

그는 학창시절 세계 역사와 관련된 책을 섭렵했다. 1960~70년대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도 못할 때라 독서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채웠다. 김찬삼 씨의 세계여행기는 훌륭한 ‘교과서’

가 됐다. 영어, 세계사, 지리부도 책은 닳을 정도로 보고, 세계사와 국사 연대를 통사로 정리해 보거나, 지리부도 속 각 국가별 연대표를 줄줄 외 정도로 파고들었다.

“지도 속 넓은 대륙에 있는 나라가 궁금했어요.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세계의 역사와 관련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세계를 누비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소중함 깨닫기’, ‘우리의 범위 넓히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 역시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고 꿈꿨죠.”

그는 서른 다섯에 승진을 앞둔 회사를 그만두고 7년간의 세계여행길에 올랐다. 마흔 둘에 국제 NGO 단체 월드비전에 들어가 긴급구호 팀장으로 세계의 재난 현장을 누볐으며, 그 후로 여행가이자 국제 구호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남다른 선택의 순간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용기’는 자신이 진정 원할 때에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누군가 ‘UN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가 꿈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꿈은 실패할 확률이 99.9%입니다. ‘전쟁을 없애고 인권을 지키는 국제평화에 청춘을 바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릴 후에야 NGO, 국제기구 등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을 수 있지요. 자신이 나아갈 세계를 좁게 보지 말고, 더 넓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바꾼다

그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

구집’이라고 말한다. 서로 흔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된 지구란 ‘집’에서는 서로를 돕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 지진과 시리아 내전에서 난민을 돕는 건 집 안일을 살피는 것과도 같다. “많아봐야 70억 인구”인 지구집에서 ‘나’를 ‘우리’로 바꾸는 일, 한 교장이 말하는 세계시민교육이다. “연민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물어주는 공감능력이 세계시민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꼽는 이유다.

세계시민학교는 2007년 ‘지도 박행군단’이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50명의 졸업자를 배출한 후 9년이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51만 명의 학생이 거쳐 갔으며, 누적된 학생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세계시민학교 활동



구호 활동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소중함 깨닫기’, ‘우리의 범위 넓히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 역시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하루에 15분이라도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한다. 가장 좋은 건 하루에 중요한 일과를 일기로 적어보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색의 시간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면 길을 헤맬 순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 그는 믿는다. 치열한 대학 입시와 취업난 또한 자신이 필요한 길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건널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인생은 큰 퍼즐입니다. 그 퍼즐 안에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까만 조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의 눈동자라는 것ですよ.”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지난 2015년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15년간의 전 지구적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해였다. 이 개발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이름으로 '15.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목표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채택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영유아 사망을 감소, 초등교육 보편화, HIV/AIDS 퇴치 등 빈곤퇴치를 위한 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새천년개발목표의 이행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을 주도하는 한국

새로운 개발목표는 이전의 새천년 개발목표에 비해 훨씬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매우 참여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당연히 '교육'도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되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각국 교육장관들과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될 교육 분야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 회의가 지난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선언문(Incheon Declaration)」은 교육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교육접근성의 확대, 교육형평성의 제고, 교육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진흥을 4가지 핵심 주제로 하여, 교육재정의 확보, 취학전 교육의 제공,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의 접근성 확대, 위기·분쟁 시의 교육 제공 등 세부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새로운 용어가 눈에 띄는데, 이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다.

세계시민교육은 오늘날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출발하였다. 취임 당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해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육은 단지 읽고, 쓰고,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교육의제 설정을 주도하여 왔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국제 교류를 증진하였다. SDGs가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실행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에 뿌리 내리는 세계시민의식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에 설파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이 불

과 수년 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2010)하며 공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국제개발협력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세계와 소통하려고 하고, 또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규 교육에서도 한국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2009)에서부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크고 작은 학습 요소들을 포함시켜 왔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낯설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접근하여 주셨으면 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2015년도부터 시작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일상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좀 무겁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커리큘럼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식, 가치관’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 정애경 서울국제교 교사

실제로 작년에 처음 실행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교과수업에서의 포럼형 토론, 사진·그림 공모전, 모의 유네스코 총회, 봉사활동, 문화체험, 국제기구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2015 세계교육포럼 당시 세계시민교육 전시회를 통해 많은 국가들에 공유가 되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 세계시민교육 공모전 입상작

- 01 완주대덕초등학교 김지수, 김채영, 이주혁 작
- 02 전남예술고등학교 이정화 작
- 03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차승비 작
- 04 분당탄천초등학교 박은기 작
- 05 혜화여자고등학교 유연주 작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신 한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을 ‘인류 보편적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 행동하며, 그리고 그것을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표현하였다. 결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거창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시민교육이야 말로 사회, 경제, 환경, 자원 등 다른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더욱 많은 세계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05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교사가 앞장 선다

교원 해외 진출 사업

‘한명의 학생, 한명의 선생님, 한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라라의 UN 연설에서)

머나먼 오지에서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온 한국의 교원들이 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 장기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었던 교원들이다. 2014년 아프리카 마지막 절대왕정 국가인 스와질랜드에 1년간 수학교사로 파견되었던 김은혁 교사(현재 거제고등학교 수학교사)는 “파견 간 학교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결코 뒤쳐지지 않았다.”면서 파견 기간을 통해 “인종을 뛰어넘은 다양한 학생들과 만남으로써 향후 교사생활에 경험이라는 중요한 자양분을 얻었다.”고 말한다.

개도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2013년부터 아프리카 등지 개발도상국에 한



한글날을 맞아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한글의 의미 되새기기(15년)

국 교원들을 장기파견(1년) 하여 양질의 교육을 현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3년간 총 61명의 교원 파견). 이 과정에서 개도국 학생들의 수학·과학실력 향상은 물론, 세계 속에 한국어와 한국을 알리는 데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간다에 파견되었던 선생님은 현지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셈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풀이과정을 스스로 적고 확인하도

록 하는 교수학습법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오류를 줄이는 논리적 풀이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은 그 해 ‘우간다 전국 중등학교 과학경진대회’ 수학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결실을 거두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맡았던 선생님은 방학까지 반납해 가며 한국어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에 힘쓴 끝에, 2016년부터 1학년 제2외국어과정에 한국어가 최초로 채택되는 성과



스와질랜드 수학수업(14년)



스와질랜드 파견교사 활동 모습(14년)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경험이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를 볼 수 있었다.

우리 교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교육적 성과에 대하여 해외 현지의 교육부와 언론, 학교·학생들은 폭발적인 호응으로 응답하고 있다. 2015년 한국 교원을 파견 받았던 국가 대다수에서 2016년에는 기존 파견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인원을 파견 요청했다는 것은 그 방증이 될 것이다.

사업에 참가하였던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며 현지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경험이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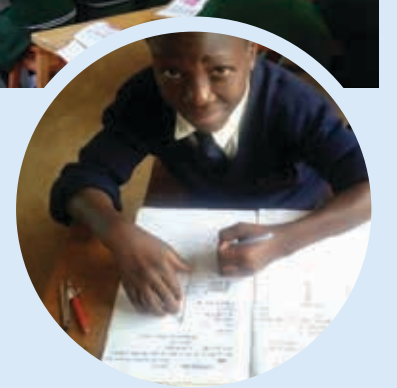
간이었다고 말한다. 2014년 우간다에 파견되었던 김솔 교사(현재 서울지역 물리과목 임용시험 합격 후 연수 중)는 “우간다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노트를 검사할 때면 그들의 배움과 성장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다.”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곳에서 내가 사랑받는 법을 배워온 것 같다.”고 회상했다.

2016년부터 파견규모 확대, 사업 개편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교원해외파견 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첫째, 연 20명에 불과하던 파견인원이 연 300명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주 파견지역(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ODA대상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나 비ODA대상국 등으로도 파견 지역·국가가 늘어날 예정이다.

둘째, 파견유형이 다변화되어 1년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우간다 학생(14년)

이상 장기간 교원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140명)뿐 아니라, 교·사대생들이 방학 동안 교육봉사를 하고 오는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160명)도 올해 처음 실시된다. 장기파견의 대상은 임용 전 예비교원부터 현직, 퇴직교원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1~3년 동안 해외 현지에서 정규수업 진행 또는 교수방법과 교육시스템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②

정보 안내 :
네이버 카페 '해외교사진출'
<http://cafe.naver.com/niiedteacher>
문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02)3668-1424, 1372, 1370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

2000년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은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국(50개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하기 위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이해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구개발, 교류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www.unescoapceiu.org).

한국교원연수

지난 2000년부터는 매년 한국교원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16차 한국교원연수는 한국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쟁점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워크숍, 세계시민교육 실천 및 방법론에 관한 토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밖에 아태지역 교사 30명이 참가하는 ‘아태지역 교원연수’도 올해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교원연수 참여자 모집 안내는 4월 중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국교원연수 참여자 모집 안내는 4월 중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경

<한국교원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부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다'	[강의] 세계시민교육 개론 [워크숍] 주제영역별 탐구 : 개론, 심화 (문화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 평화적 갈등해결, 인권, 민주시민 등) [활동] 나눔 및 토의
2부 '세계시민교육, 아이들과 만나다'	[워크숍] 교육과정에 따른 실천방법론 / 세계시민교육 수업방법론 및 우수사례 발표 [액션플랜] 개별 학교현장 실천계획 수립 및 발표 [특강] 학생인권과 세계시민교육
3부 '교사들이 만드는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연구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현장연구기법 /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한 교사 간 협업
마무리	[액션플랜] 향후 활동계획 수립 및 발표



01 02 글로벌 유스(Global youth) 워크숍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아태교육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유학기제를 맞게 된 중학생들에게는 이곳 체험관이 참여형, 체험형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제기구 진로 탐색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3월 중 참여 학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 ▶ 장소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1층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 ▶ 참가 시간 : 총 3시간
- ▶ 참가 학생수 : 1회에 한 학급(최대 40명)
- ▶ 체험 개요 (홈페이지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안내 참조 <http://www.apceiu.org>)
 - 모의 유엔/유네스코 총회
 - 세계시민여권 만들기
 - 세계시민 역량지수 테스트
 - 유엔/유네스코 기념일 알아보기 등
-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E-Mail) → 심사 → 결정 통보(개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한국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를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3~4개월간 파견하고 상대국 교사를 한국에 초청하는 교사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교사들은 상대국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 교과, 자국어 및 자국의 문화소개 수업을 진행하며 현지 교사들과 서로의 교수법 등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 교사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수업안 등의 결과물은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교사들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교사들에게 외국학교에서 공동수업을 하고 학교 교류활동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올해 11월 중 호주,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에 파견될 유·초·중등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 사업의 파견교사 모집 공고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공지되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문으로도 안내가 이루어진다. 모집공고 시기는 파견대상국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올해는 3~4월경 1회, 그리고 6~7월경 1회 모집 공고가 날 예정이다. 12

세계와의 소통, 나도 도전해 볼까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프로그램

국가의 전략적 필요 인재 양성, 학문 분야의 고른 발전,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학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균등 실현, 나아가서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할 글로벌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상세정보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niied.go.kr),
국비유학카페(<http://cafe.aver.com.ngsg1977>)
- 지원사항 : 장학금(국가별 상이함, <예>미국 일반전형
국비유학생 연간USD 40,000), 출국국항공료)

※ 2015년 선발 분야인원 (*2016년 국비유학시험은 3월 중 공고 예정)

분야	일반전형(전공분야별)		저소득층 특별전형	기술기능인 특별전형
지역연구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7개 지역·국가)	16명	24명 (분야는 일반전형에 준함)	15명 (연수포함, 특정지원 분야 없음)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4명		
기초학문연구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기초학문연구	18명		
미래성장 동력연구	첨단 IT 융합, 차세대 CT 융합, 신재생저탄소에너지, 고부가서비스 연구 등	18명		
합계		56명	24명	15명

한·일 한·중 교류 프로그램

한·일 교류는 양국 교원 및 대학생, 중·고생, 상대국 어선택 교교생 간 이루어진다. 대학생만 국립국제교육원의 직접 공고 및 대학에 공문(4월중)을 통해서 선발(5월중)되며, 그 밖의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 공고(4월중) 후, 시·도교육청을 통한 추천 및 선발(5월중)로 이루어진다.

※ 연수내용 : 학교방문 및 교육교류, 문화유적 탐방,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교류명	방일(명)	방한(명)	기간	방일시기
교원 및 대학생	160	80	9박10일	5~11월
중·고생	200	200	6박7일	10~12월
상대국어선택 교과생	60	60	4박5일	8~9월

한·중 교류는 양국 중·고생 및 대학생 간 이루어진다. 중·고생 교류의 경우, 2016년에는 충북교육청 주관 하에 소속 중·고생 150명을 3월중 자체 선발하여 10월(예정)중 중국 방문 연수를 할 예정이다. 대학생 교류는 상대국 위탁대학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한다. 방중 대학생 선발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공고 및 대학에 공문 시행(2월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류명	방중(명)	방한(명)	기간	방중시기
중·고생	150	150	6박7일	10월
대학생	60	60	5개월	9월~1월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 사업은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이공계 인재양성 및 한·일 양국 간의 선린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발 및 장학금 지원내역은 고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조기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후 6개월 경과된 자 포함)

함)로서 만 19세 이하인 자 100명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
이 국비장학금을 지원한다.


2016년 제2차 8기생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은 금년 4월 중 공고하여 7월 23일 필기시험으로 120명을 선발하여 면접 후 최종 합격자 100명을 1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과정		내용	1인당 지급액	부담 국가	장학생 체류지
예비교육 (1년)	전기	예비교육연수비	450,000원/월	한국	한국
		생활비(월)	500,000원/월		
		도입 항공료(편도)	항공료 실비	일본	
	후기	입학 검정료	17,000엔/1회	한·일 공동	
		수업료	250,000엔/1회	일본	
		생활비(월)	117,000~120,000엔/월		
학부교육 (4년)		입학금	282,000엔/년	한·일 공동	일본
		수업료	535,800엔/년		
		생활비(월)	117,000~120,000엔/월		
		귀국항공료(편도)	항공료 실비	한국	

WEST 프로그램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은 2008년 한·미 정상 간 상호 교류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체계적인 비즈니스 어학연수와 다양한 양질의 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해외인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와 소독분위에 따른 현지 생활비가 차등 지원되며, 2009년부터 매년 약 4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2,50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격 및 선발일정 확인,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사업소개】→【해외인턴사업】/【WEST 프로그램】 또는 【소통&공유】→【해외인턴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턴팀(02-3668-1462~7)으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든다

올해 교육부 5대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이 그중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말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향후 3년간(16~18)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위해 5대 분야 60개 세부과제도 세워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다.

2017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대상 안전교과를 개설하고, 초3부터 고3까지 안전단원을 신설토록 했다. △초등 3~6학년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확대, △수학

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체육·과학실험 시 작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 안전교육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보급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도 지원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정해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한 5분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놀이로 안전 배우는 '기적의 5분'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초등돌봄교실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나, 실습형 인형을 가지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체험 중심으로 교육하여 어린 학생들이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응급 대처 능력을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새롭게 시도한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태현초 등 26개교 초등돌봄교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13개 팀 39명이며, 팀마다 심폐소생술 유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되었다. 김순구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유치원생이 압축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로 엄마를 살린 기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자 소생률이 낮은 편이며, 특히 가정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전 국민이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대구시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돌봄교실 학생은 장시간 학교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안전사고 위험



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학생들에게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해 교육기부를 아끼지 않은 간호학과 학생에게 감사하다. 대학생봉사가 농촌봉사활동(농활)뿐 아니라, 초등돌봄봉사활동(초활)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인력을 교육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 대구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는 95.6%에 이르고 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알찬 수영교육

올해 1월 4일부터 13일까지 회천서초등학교(교장 한명희) 3~6학년 학생들은 5회에 걸친 수영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번 수영교육은 일회적인 캠프이기보다 여름방학 때부터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이번 겨울방학까지 총 23회로 진행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수영실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키판에 의존해야 했던 여름방학 때의 학생들이 아니다. 자유형으로 한 레인을 충분히 수영해 나아감과 동시에 이제는 배영까지 익히는 학생들이다. 수영교육을 참관하러 온 4학년 노경민 학생의 어머니는 “여름방학 때 비해 실력이 많이 늘어 흐뭇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수영을 꾸준히 해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하면 좋겠다.”며 수영캠프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수영교육이 의무화된 요즘, 안전한 내일을 위한, 건강한 나를 위한 꾸준한 교육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도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순천북초등학교(교장 박채구) 교직원 일동은 최근 순천북초 사거리에서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로 ‘교차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매곡동주민센터 주최로 순천북초 교직원과 매곡동 주민자치위원, 북문파출소,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등 학교 주변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힘을 합쳐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의 일원들은 빈번한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열띤 피켓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교차로의 정지신호 기간에 정지선을 지키게 유도하기,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성적 몸짓을 통한 법규 준수 유도 활동, 따뜻한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감성 문구가 담긴 캠페인 활동이 주가 되었다.

법규를 어긴 운전자들은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 피켓 활동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였고, 운전자에게 확성기를 통해 미소나 눈인사, 감성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자에게는 따뜻하고 당당한 마음이 들게 하였고, 위반자에게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여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예방 효과를 거두었다.

순천북초 생활안전담당 류태성 교사는 “피켓 캠페인은 차량 흐름을 단속으로 인해 끊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계도할 수 있어 예방적 효과 등에 장점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화초, 안전자람터 안전체험공부 ‘인기’

2014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 받은 부산개화초등학교(교장 최수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학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자람터(안전체험실)를 개방·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안전체험실에서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전기·가스안전, 재난안전 등 6개의 안전체험 부스와 안전포토존, 소방복 체험 등 모두 30여종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들 체험코너 중 불꽃조끼 체험(몸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안전체험실 체험으로 학생들이 안전을 몸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재난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교현장 재난, 안전관리 119 매뉴얼’을 개발,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전체 유치·초·중·고에 보급했다.

이 매뉴얼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례별 행동요령을 만화 형태의 삽화로 구성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

있게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개발에는 학교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교사, 재난담당 공무원, 기자 등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 앞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근혜정부 교육개혁 성과를 말하다

“자유학기제 평가 ‘성공적’... 정책효과 체감도 더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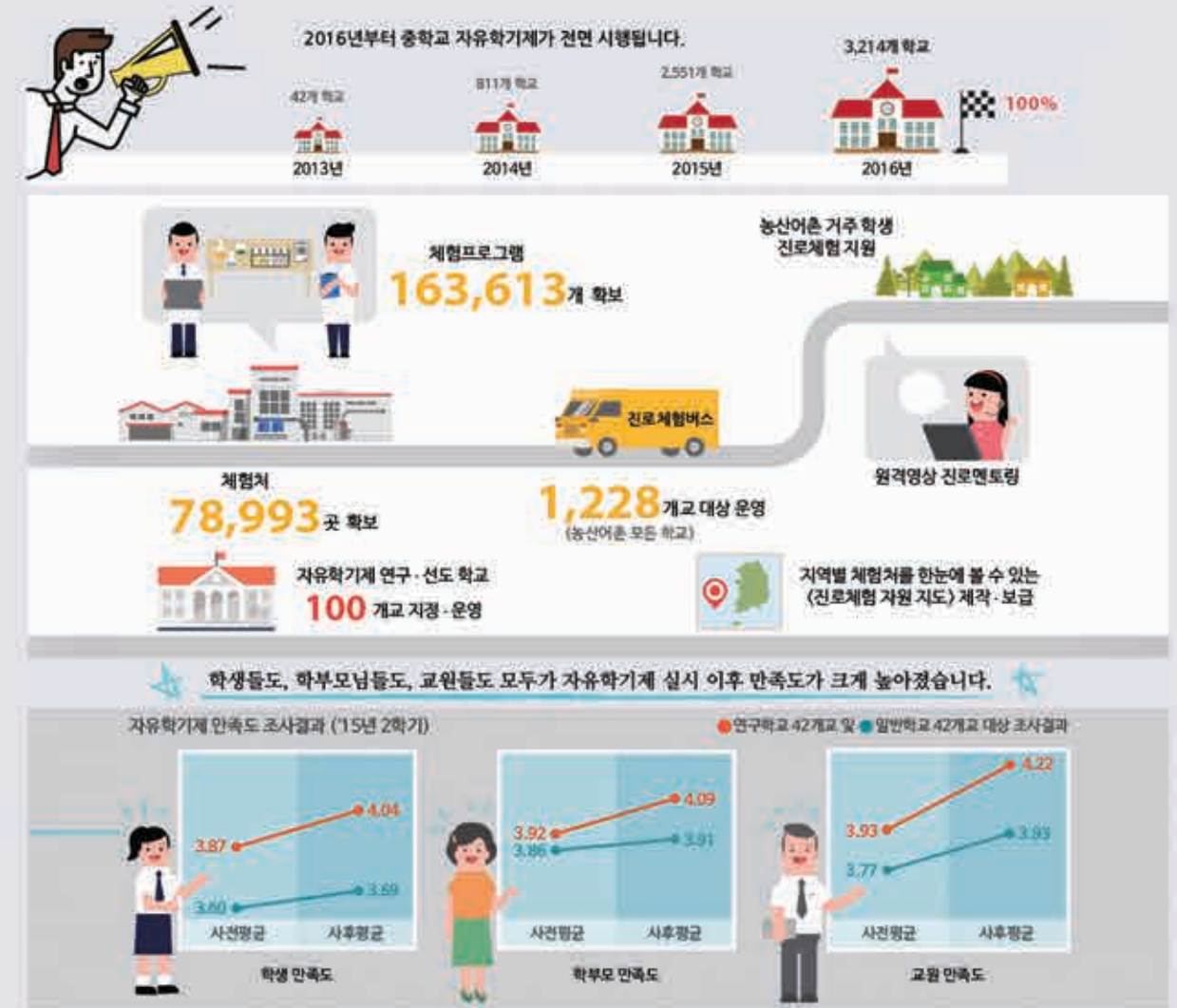


박근혜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교육부는 그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무게를 집중해 왔다.

먼저, 초·중등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2015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공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과정 도입 등을 통해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고졸취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갖추었다.

대학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정부지원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등록금 중의 절반을 국가와 대학이 부담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달성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었다.



새로운 학교문화 이끄는 자유학기제

특히 교육부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 자유학기제 확산 △ 일학습병행 확산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교육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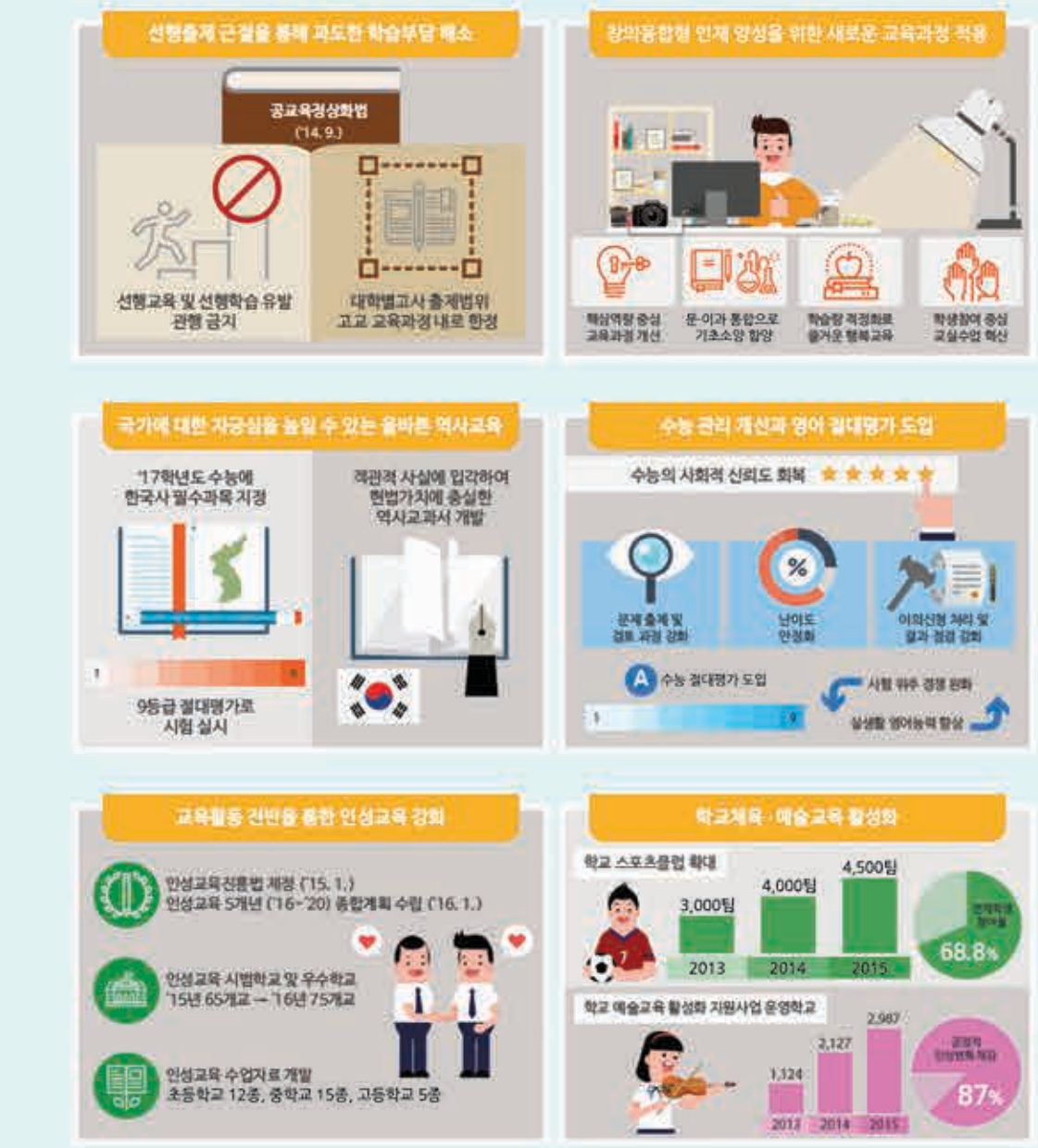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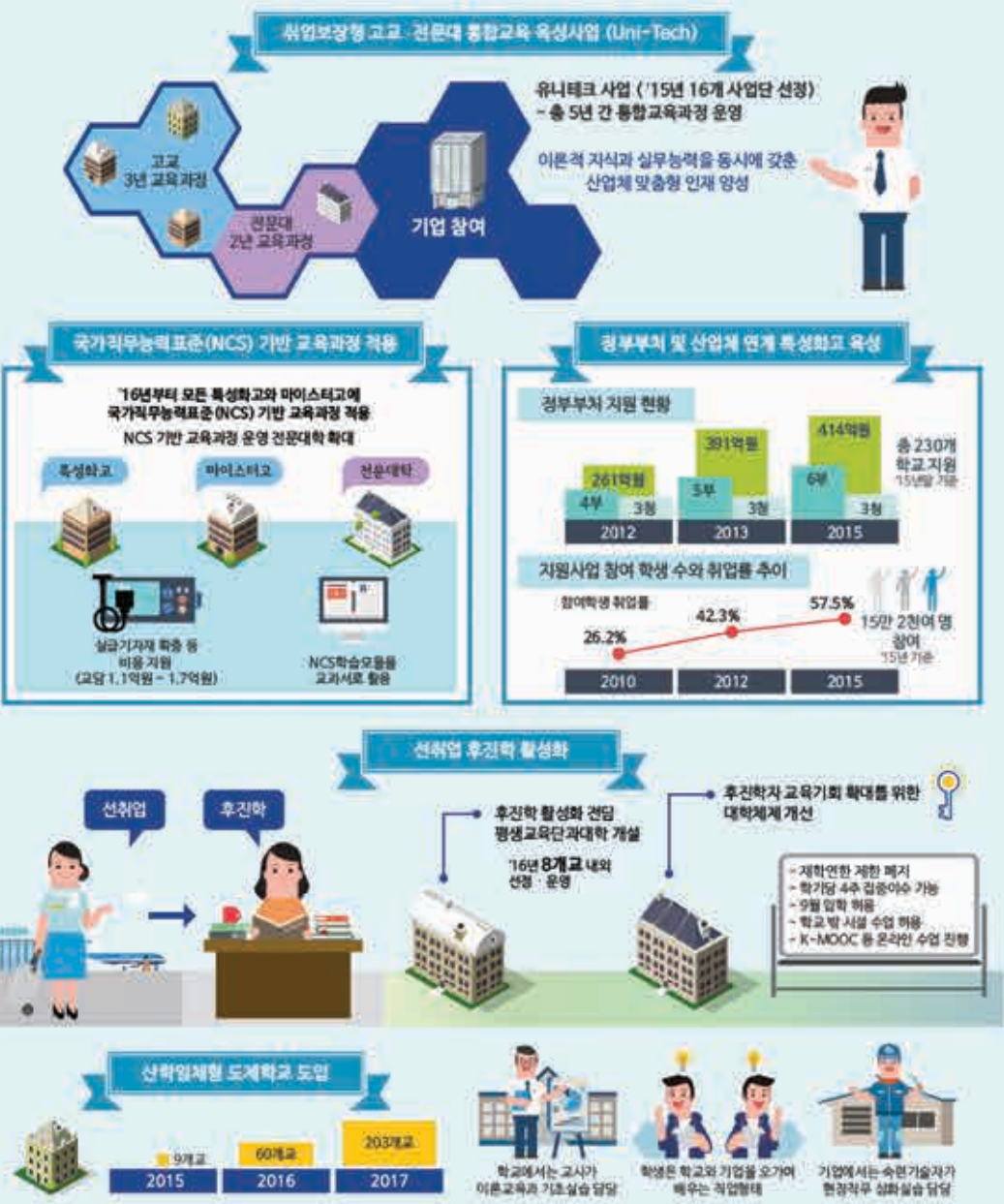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15년 당초 목표인 50%를 크게 상회하는 80%의 중학교에서 실시되었고, 올해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2학기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15.2학기 학생:3.87→4.04, 학부모:3.92→4.09, 교원:3.93→4.22)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년 1.11% → '15년 0.68% 0.43%p 감소). 더욱이 사교육 참여비율이 감소하고('15.2학기 국어 3.4p%, 영어 1.0p%, 수학 0.9p% 감소) 학업성취도는 향상되는 성과('13 대비 '14 학업성취도: A(매우 우수) 비율이 국어(5.96%p), 수학(3.5%p) 증가)가 나타나 자유학기제가 학교수업의 혁신은 물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5 교육과정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지난해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주목된다. 즉 개별 교과 수업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

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되고 확장될 수 있는 핵심개념을 가르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사고력·의사소통능력 등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수·학습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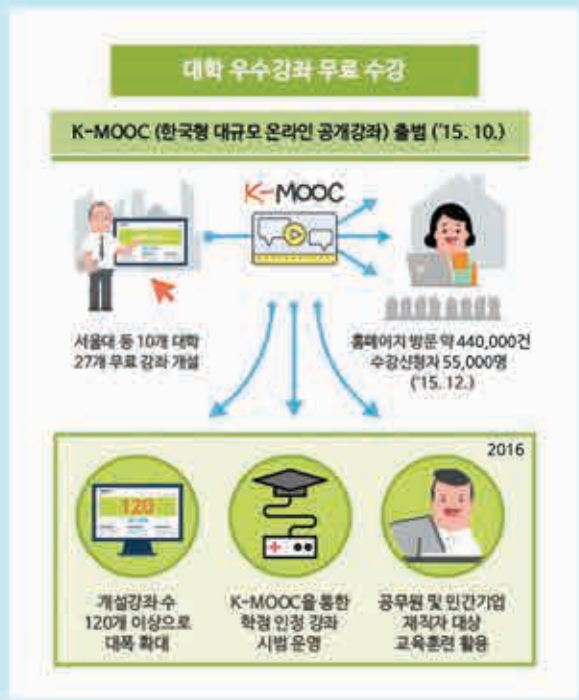


현장 중심 직업교육 성과 속속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유니테크(Uni-Tech)를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단계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도제학교 60개 교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도출하여 내년 203개 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들은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선취업·후진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수요 맞춤 대학교육 혁신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 육성은 대학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무관리·제조분야 등에서 700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공학 관련 일자리는 2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으로 대학-산업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사회맞춤형 학과’이다. 즉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학과를 말한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학과 확대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6년 연두업무보고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등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업과 대학을 매칭하는 등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의 창의적 자산이 기업체에 이전되거나 직접 사업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산학연 모델을 만들고 있다. 대학 내 창업동아리('15년 223개 대학, 4,070개 → '16년 4,500개)를 활성화하여 창



업유망팀 300개를 육성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휴학제('15년 200교 → '16년 230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15년 92교 → '16년 105교))와 창업 장학금('15년 197명 → '16년 250명) 등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PRIME)은 대학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만 총 2,012억 원으로 3년간 총60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PRIM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사회·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피부에 닿는 정책 실현에 무게

박근혜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다. 국가장학금을 설계했던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 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킨 것이다.

올해도 정부재원 장학금을 작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하여, 정부재원 장학금 예산을 4조 원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43%이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평가된다. 2011년 5,2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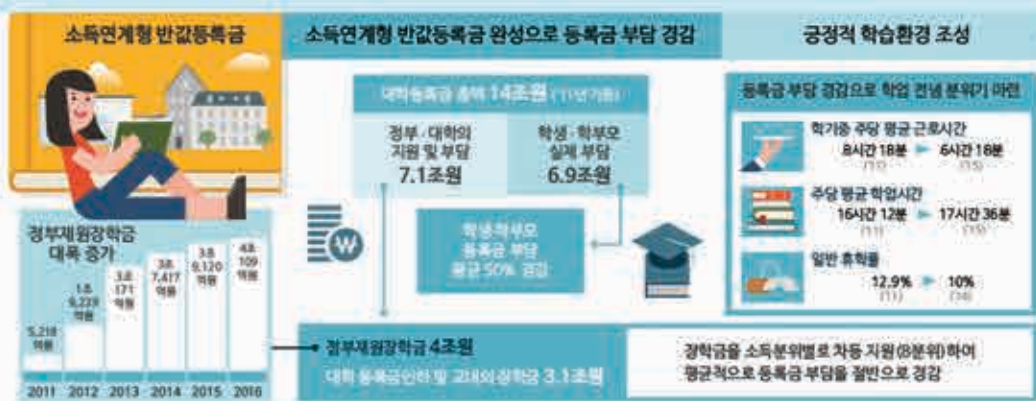
이었던 규모에 비하면 670%나 증가했고, 정부재원 장학금 수혜자 수도 '11년도 12만 명에서 '15년도 120만 명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반드시 그 혜택이 돌아가고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한다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온 지난 3년. 교육부는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었던 대입수능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개편, 평생교육단과대학 개설 등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시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교육가족 모두 힘을 모을 때다. **고**



신선한 청렴문화운동 이끄는 교육부의 '허파'

감사관실



김청현 감사관

교육부 감사관실은 교육 관계자들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교육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서입니다. 신선한 산소를 호흡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허파'와 같은 곳이지요.

감사관실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등 3개과로 구성되어 30여 명이 교육 감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및 소관 공공기관·단체 등에 대한 감사와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은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공직기강 및 복무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학감사담당관은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와 자체 감사 활성화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책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30여 명의 직

원들은 450여 개에 이르는 감사대상기관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감사기술을 습득해 나날이 감사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감사관실 직원들은 '인조인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지요. 사사로운 인정에 휩싸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차가운 이미지로 비쳐지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무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과거에는 탐욕(특히, 금전에 대한 욕심)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는 자세만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에는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교육정책의 건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그 어떤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책무로 바뀌고 있다고

감사관실 직원들은 전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자세가 바뀐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우리나라가 청렴 선도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감사관실에서는 부정·비리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라는 기존의 감사 형태와 병행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교육부 차원의 '청렴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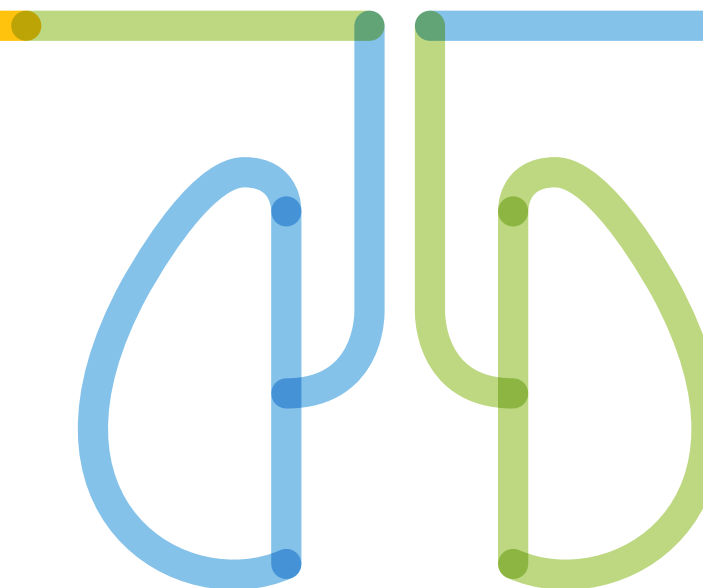
특히, 올해 1월 하순부터 '보다 청렴한 교육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교육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관이 6개 전 부서(과/팀)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집합·원격교육만으로는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구성원들과 마주 앉아 '청탁 대처법'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새로이 습득하거나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자내기(더치페이, dutch-pay)', 업무처리 시 '청탁을 거절하는 방법' 등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담은 『손 안에 청렴 실천 수칙』 소책자를 바탕으로 그간 실천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렴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 기간 중 A부서의 B직원 은 익명으로 배달되어 온 가족장갑 한 켤레(4만5천원)를 감사관실에 신고하는가 하면, C부서의 D직원은 사무실로 보내온 선물을 신속하고도 정중하게 되돌려주는 등 직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

교육부 감사관실은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으로 단 한 건의 부패행위, 단 한 명의 부패공직자도 용인하지 않는 적극적인 청렴정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고 합니다.

청렴 실천으로 교육정책의 신뢰 회복

교육부 감사관실에서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부정·비리에 둔감한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부정·부패 행위는 잠시 눈가림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충치가 있으면 그 부위를 갈아 내야 치료가 되듯이 부패한 공무원 은 발본색원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앞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청렴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 강화와 상호 견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한 건의 부패행위, 한 명의 부패공직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발 디딜 곳 없는 청정한 교육세상을 위해, 교육부 감사관실을 응원합니다! ⑤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 • 전남 아산초등학교

인·사이드·아웃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산골아이들의 행복이야기



클 이근태 교사

2013년 9월 아산가족 하나 되기!

전남 화순의 백아산 자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산촌학교. 학생 수가 42명, 다문화 및 취약계층이 70%, 학구 내에 교육·문화기관이 전무하여 활기가 부족하고



전을 공유하게 되었고 학교를 살리 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함께 산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탈바꿈시키고자 백아바위의 꿈 프로젝트를 시작 하게 되었다. 백아바위의 꿈 프로젝트는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하기, 소통과 참여의 교직원 협의문화 조성하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14년 아산가족 성장하기!

같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니 꿈을 꾸자마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교사가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

어 우수교원이 전입할 수 있도록 무지개학교와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를 추진한 결과 우수교원이 많이 전입하여 학교가 활기를 되찾았다. 미래 학습 환경으로 교실을 개선하고자 삼성사회봉사단에서 추진하는 농어촌학교 디지털화 사업에 응모하여 교실을 스마트교실 환경으로 구축하였고, 1인 1스마트탭과 학교 와이파이존도 구축하게 되었다.

또 권위의 나눔과 배분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소통과 참여의 협



백아바위의 꿈 프로젝트는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하기, 소통과 참여의 교직원 협의문화 조성하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학교 전경



아산 브릿지(Bridge)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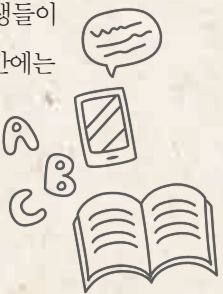
의문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 협의문화가 정착되자 교사들의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시작하였고 배움 중심의 수업문화가 확산되었다.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잘 배웠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자 교실수업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했다. 교육관이 다르고 선호하는 수업 방법이 다른 교사들이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한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 중심의 수업,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와 토론을 거듭하며 그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3시에 시작된 수업 방법 연수와 협의가 9시가 되어 끝난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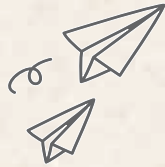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교사들의 시야에서 자기만 학생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자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들은 학생들이 듣고 암기하고 시험보고 잊어버리는 교육을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가정에서의 학습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산초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질문과 토론이 있는 하브루타 수업과 플립러닝 수업을 함께 익혀서 적용하였다.

하브루타 수업을 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질문카드를 만들어 항상 휴대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미리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수업시간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생각하는 힘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잘 갖추어진 스마트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하였다. 교사가 직접 만들어 탑재한 사전학습 동영상이나 디지털교과서

를 미리 가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해 오면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사전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다음 바로 문제를 해결하여 적용하기 위한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 듣고 대답하고 쓰는데 집중하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지식을 가르치던 수업이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학부모들이었다. 가정에서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 탭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자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숲에 풀을 제거하기 위해 예초기를 들고 오셔서 수업에 방해될까봐 주





말에 베고 가신 학부모, 쓰러질 듯 서 있는 큰 벚나무 가지를 전정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주신 면장님, 아침에 자원하여 책 읽어주는 엄마교실을 운영해 주신 학부모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변화가 일어나자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다. 아

산교육공동체 전 가족이 참여하는 1박2일 가족캠

프를 백아산 휴양림에서, 풋살과 태권도교육, 병영체험을 유격교육대에서, 우리 고장 문화체험을 화순문화원에서, 수영교육을 화순금호아쿠아나에서, 다문화축제를 화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한 명의 학생을 기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구성

원들이 동참하였다.

산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소극적이고 도전의식이 약한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두레모임으로 협의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도전 활동을 도입하였다. 1~2학년은 무등산 무돌길 18km 걷기, 3~4학년은 섬진강 물길 따라 34km 인라인 타기, 5~6학년은 제주 올레길 80km 자전거 타기를 도전 미션으로 연중 프로젝트로 운영하였는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2014년 1학기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에 교직원들이 협의한 결과 100대 교육과정에 도전하기로 하고 TF팀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응모하였으나 전남에서 탈락하였다. 원인은 사전계획이 부족하였고, 교육비전부터 내용에 이



르기까지 교육과정 구성이 하나의 스토리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지 않고 프로그램만 나열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00대 교육과정 응모의 경험은 교사들을 한 단계 성장시켰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2015년 아산가족 도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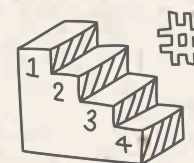
2014년의 100대 응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하자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분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로 다가왔다. 특히 교육비전은 엄청난 산고 끝에



교원협의회

수업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이나 전문가와 만나는 다리(브릿지)를 놓아 질문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를 위한 아산 브릿지(Bridge)수업은 수업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전문가와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탄생하게 되었다. 아산교육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미래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협의한 결과 비전에 인·사이드·아웃 용어를 도입하였다. 인·사이드·아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끄집어 내어 해결하는 상담기법의 하나인데, 이것이 '인교육'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기르기, '사이드교육'으로 소통과 협력하는 능력 기르기, '아웃교육'으로 창의성과 인성 발휘하기라는 본교의 핵심역량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용어를 도입하였다. '인·사이드·아웃교육으로 꿈과 끼를 키워가는 아산 행복교육'이라는 비전이 정해지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시수 증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선정, 중점 교육활동, 특색교육활동 등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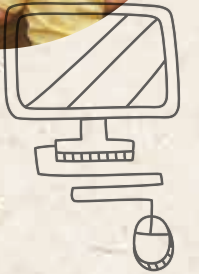


특히 특색교육 활동은 100대 교육과정의 성패를 좌

우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되어서 특색교육활동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다. 협의 결과 이전 학년도까지 해 왔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실 수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특색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전년도 교육과정 반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학급에 7명 내외의 소인수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을 하는데 생각과 사고에 한계가 나타났다. 유치원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생활하다보니 생각이 확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이나 전문가와 만나는 다리(브릿지)를 놓아 질문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 아산 브릿지(Bridge)수업이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전문가와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본교의 특색교육인 브릿지수업은



아산교육공동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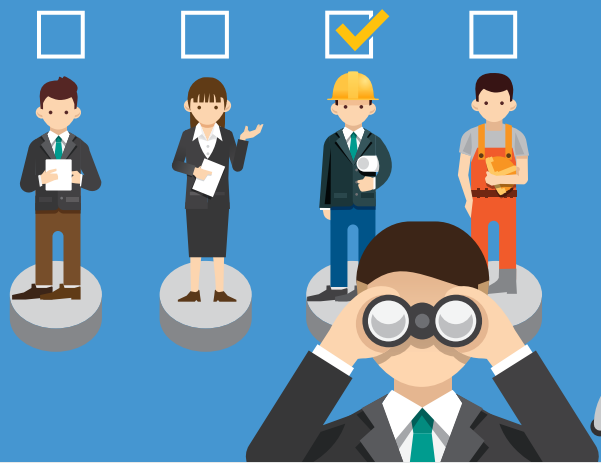


우수 사례로 추천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5 삼성미래학급상과 미래교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처럼 아산 교육가족이 하나가 되어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로 100대 교육과정의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 결국 100대 교육과정의 성패는 어느 뛰어난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협의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아이 퍼스트 정신으로 의견을 조율해 간다면 어느 학교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②

산업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요구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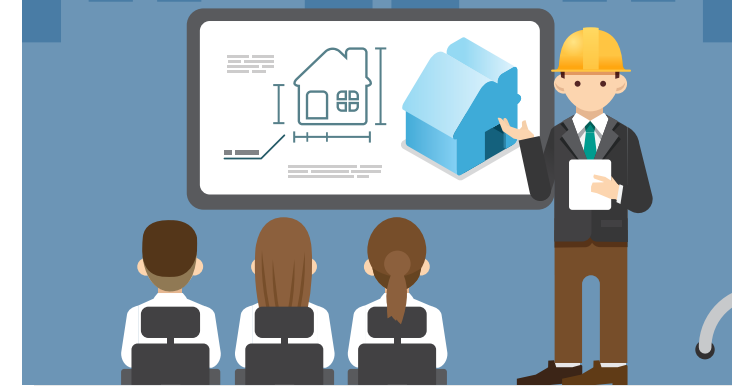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입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게 바꿔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기존에는 이력서에 학력, 가족사항, 스펙 등을 담았다면,
앞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환경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경험을 쓰게 됩니다.

합격

교육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에
딱 맞는 인재를 길러냅니다.**

직무에 딱 맞는 인재를 기르는 NCS 기반 교육과정

양영디지털고는 2013년부터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에 맞게 교육과정을 확 바
꿨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의 산
업계 현황을 분석하여 전자제어, 정보통신, 소프
트웨어 개발, 바이오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했습니다. 협력 기업체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학생
들을 직접 가르친 덕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쑥 올랐습니다.

학교 현장의 직업교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 따로, 취업 준비 따로 감당하던 학생들의 부담



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때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말 그대
로 직무에 맞는 능력이 무엇인
지 국가가 표준을 정해 놓은 것
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교육
과정을 바꾸고, 교육과정에 맞게
학습모듈(가르치는 내용과 방식)도
일일이 개발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신입생들은 NCS 학습모듈

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이력서에 무엇을 담았나요? 지금까지 학력, 가족
사항, 스펙, 성장과정, 지원동기 등을 썼다면, 앞으로는 달라
집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험을 했는지,
문제해결력·목표의식·도전정신 등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갖췄
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미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해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이 곧바로 일자리에서 쓰일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②

이공분야 기초연구 ‘연구자 맞춤형’ 지원 추진



2016년 주요 추진 방향

추진 방향

- I. 연구자 맞춤형 지원
- II. 기초연구 지원 확대
- III.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중점 추진과제

1. 개인기초연구 사업구조 단순화
2. 연구수요에 맞는 탄력적 연구지원
3. 「한우물파기」 장기·심화연구 지원
4. 신진연구자 및 중견연구자 지원 확대
5. 지역 및 여성 등 배려계층 지원 강화
6. 소규모 공동연구 활성화
7. 학문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다양화
8. 소액과제 평가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그 중에서도 제일 반가운 소식이, 이공학 개인기초 분야는 최장 10년까지 연구기간을 늘려, 장기간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수과제는 후속연구까지 지원하고요.

정말요?



정부는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총 사업규모는 1.1조원으로, 교육부에서는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3,415억 원을 기초연구 사업에 지원한다. 전년대비 50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자 맞춤형으로 체제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일률적인 연구지원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과제는 평가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연구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여 한 분야 연구에 장기간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이공분야의 ‘한우물파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논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대응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

미국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대응 시스템

핀란드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대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릴 때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2000년 1월 2일 전부개정되고 2000년 7월 13일 시행된 「아동복지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근의 법적 변화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협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그밖에도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아동·학부모·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교사

를 활용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가정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발견 및 신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라는 세팅을 활용하여 교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교사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아동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들에게 아동안전

교육(아동학대 예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의무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충실한 아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놀이식, 체험식 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학교의 자체교육 또는 아동복지기관의 찾아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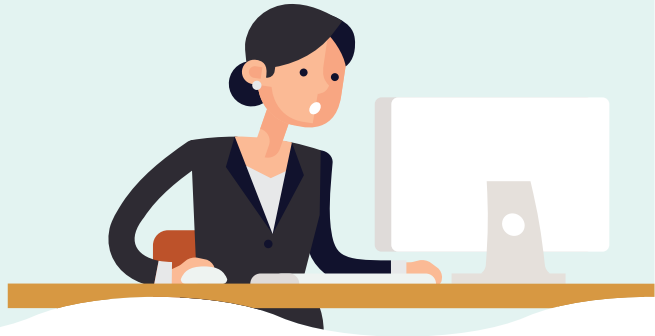
가는 교육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

둘째, 부모에 대한 올바른 아동양육방법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로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령별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체벌의 문제점과 체벌을 대신하는 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전략 등이 있다.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훈육이나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자행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적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 대응 시스템



최근에 연일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이미 발생한 학대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학대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법률체계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미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1874년 게모에게 심각한 학대

를 당하던 9살 소녀 메리 엘렌(Mary Ellen) 사례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사회는 약 150년에 가까운 아동학대 개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메리 엘렌 사례 이후로 미국사회는 아동학대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입, 예방, 아동의 인권옹호 등 미국 전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국가정책 및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1962년 켐프(Kempe) 박사의 ‘매 맞는 아이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에 대한 논문발표는 미국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 아동학대 법안인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의 제정은 학대 및 방임의 위험성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국가의 공식적 역할 및 책임을 인식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아동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APTA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연구기금 제공, 의무교육,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서비스의 기본철학은 아동의 안전, 영구적 계획, 원가정 보호라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즉,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아동에 대한 개입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외상(trauma)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자신의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원가정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에 기반하여 미국사회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등을 정부기관인 아동국 소속의 공무원들이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대로 신고된 부모 및 가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부모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입을 함으로써 실천현장

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부러운 상황일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을 통해 학대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정에서의 추가적 학대발생의 예방을 위한 개입 및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의 연대적 책임의 의미를 담은 ‘Children's Trust Fund’의 운영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미국에서 학교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학교교직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학교는 아동들이 지속적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특성이나 심리상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은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의 행동, 신체상태, 감정 등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교사들은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아동국에 신고

를 해야 하며, 이외에도 아동의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면 아동방임으로 의심되기에 아동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는 아동과의 상담이나 대화과정 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방임에 속하여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

교사는 아동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담당자는 아동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면 바로 학교로 와서 해당아동을 만나게 된다. 학교는 CPS 담당자가 방문하면 즉시 아동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며, 아동은 CPS 담당자와 함께 교내 보건실에서 의료진을 통해 아동의 몸상태를 확인하여 신체적 학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아동이 경험한 심리·정서적 영향도 중요한 학대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은 협조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학대 피해아동의 나머지 형제자매들 역시 아동학대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학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서비스의 기본 철학은 아동의 안전, 영구적 계획, 원가정 보호라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대피해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들 역시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국의 서비스 대상자가 되며, 이들 형제자매들은 심리치료,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미국 학교에서의 노력도 주목할 만한데, 미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들의 민감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대의 조기발견 및 이들 가정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미국 학교의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핀란드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대책



핀란드에서는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가 사회보건부와 아동보호 단체에 의해 1990년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가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은 1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아동학대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약 두 배 많았다. 한 해 동안 15세 아동의 20%가 부모의 가벼운 폭력을 겪었고, 약 5%의 학생이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가벼운 폭력을 겪은 학생은 72%에 달했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8%나 되었다¹⁾. 핀란드에서 1990년 최초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학대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체벌금지법 제정

핀란드에서는 1914년 제정된 법으로 공립 교육기관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었다. 또한, 1984년에 일반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아동 체벌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핀란드의 부모들이 아동체벌 금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1984년 체벌 금지법 제정 당시에 전 국민의 40%는 이 법 제정에 반대했고, 2014년 4월 발간된 핀란드 아동보호 센터(Lastensuojelun Keskusliitto)의 조사에서 15%의 핀란드인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 때는 신체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체벌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도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부모의 학대로 인해 8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핀란드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

다. 사회보건부와 학교에서 상담과 보 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근무자는 직업학교에서 양성한다. 이 학생들 교육용으로 2012년에 제작된 자료²⁾에는 핀란드에서 부모의 학대로 매년 5~6 명의 아동이 죽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한다는 통계가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 전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듯이 핀란드에서도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 핀란드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와 폭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만1~6세 아동을 돌보는 유치원과 가정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학대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하는 사람들이다.

핀란드에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두 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유사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2004년부터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대처요령 매뉴얼

핀란드의 학교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핀란드에서 아동학대의 인지과 사건 개입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과 정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2008년 개정된 아동보호법은 아동학대를 관할하는 사회보건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neuvola), 그리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교사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직종에 속한다. 이 법은 아동학대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협동,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에는 아동학대에 대처 요령이 작성되어 있어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초학교, 직업학교, 보충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 교사는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는 즉시 교장과 상담 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는 무기한 결석, 등교 시간 불규칙, 수업 집중력

**핀란드에서 아동학대의
인지와 사건 개입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과
정부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저하, 교우 관계의 악화, 신체적 변화, 타박상과 골절, 의복상태 불량, 두통과 복통, 무기력함 등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담임교사나 과목담당

교사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사는 학대 받는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란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업무는 교장, 심리학자, 학습지도사, 그리고 상담교사가 맡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이들 전문가들이 상주하지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몇 개의 작은 학교 또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담임교사나 과목담당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보고 받는 즉시 학생 면담, 가정방문, 부모 호출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다. 핀란드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일주일

이상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핀란드 학교는 철저한 교육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와 폭력 등의 불행한 일을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¹⁾

1) 출처:Sariola, H., Lasten väkivalta- ja seksuaalirikokset. 1990, Helsinki: Lastensuojelun keskusliitto.

2) Mäkelä, I & Reijola, N(2012): LAPSIIN KOHDISTUVA FYYSINEN VÄKIVALTA JA SEN TUNNISTAMINEN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소통·공감하는
부모 역량 키우기 지원

이 땅의 부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녀교육'이 아닐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아왔기에 자녀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부모로 거듭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에 초점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센터장 방경곤)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체계화된 교육과정 이 특징이다<표 참조>. 학교 급별로, 영역별로 각각의 전문 강사를 두고 현장의 요청에 따라 강사를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즉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을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초등 저학년일 경우, '행복한 아이 부모가 만든다'를 주제로 올바른 칭찬과 꾸중, 저학년 자녀 지도법 등의 내용을 다루며, 중학생 자녀

를 둔 학부모에게는 사춘기 청소년의 신체변화와 성교육, 원만한 대화법 등 '자녀와의 행복한 수다'를 주제로 학부모교육이 이뤄진다.

대구시교육청 최진아(학부모교육 담당) 장학사는 "학교 급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부모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단계별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지역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연간 20시간의 학부모교육을 하게 된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과 '부모의 교육철학 확립'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 급별로, 영역별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다보니, 인력풀도 상당하다. 지난해에는 500여 명 규모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심화과정 연수

강의 평가가 낮은 하위 30%를 제외하고 신규 강사를 다시 뽑아 강사진을 새롭게 꾸렸다. 이렇게 선발된 48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연수를 진행했으며, 강의 시연 등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다.

밀착형 가족상담 '가족행복카페'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기본과정이라면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내에서는 매년 3~12월까지 심화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을 찾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마친 열혈 부모들이다. 센터 내에서는 시기별, 사안별로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학식이 열리는 3월경에는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우리아이 학교 적응기'에 대해 강연하고, 대입원서



각급 학교 학부모교육

를 접수하는 시기에는 자소서 작성법, 입학사정관 등 진로진학에 대해 강연한다. 자유학기제나 선행학습 규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이슈가 되면 학부모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식이다.

방경곤 센터장은 "학부모가 궁금한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다. 때문에 시기별로 사안별로 이슈가 있을 때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민은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70%의 학부모를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시간에 쫓겨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

들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학교에서 초빙하기 어려운 유명 강사를 초청, TBC방송국과 연계하여 1시간 분량의 학부모 강좌로 편집하여 TBC방송과 센터 홈페이지(사이버교육)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현재 5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초대해 문제 요인별로 학생·학부모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카페'를 운영한다. 30가족을 대상으로 5주간 코칭 및 멘토링 등 밀착 형태로 이뤄진다.

방경곤 센터장은 "엄마들이 학부모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부모교육을
녹화 중인 TBC 방송

남을 바꾸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바뀌니 주변이 바뀌더라.'는 것이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실천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 가정이 똑바로 서야한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 학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한다. ②



자녀교육 가이드북

학교 급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

급별	부모역할	인성교육과 인문학	안전한 생활	자기주도 학습	창의적 인재	진로
0~2세 예비	영아와 부모의 관계형성	올바른 인성, 현명한 교육	건강한 생활, 행복한 영아	조화로운 발달, 균형 있는 성장	영아 창의성, 미래사회의 이해	놀이로 성장하다
3~5세 유치원	유치원생 자녀와의 행복대화법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	안전생활 습관형성	놀면서 배우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새로운 세상을 위한 유아기 인재교육	감성 지능 꿈·끼 찾기
초등 저학년	행복한 아이, 부모가 만든다	바른 인성으로 자녀 행복 더하기	슬기로운 자녀의 안전한 생활습관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내 아이, 미래 인재로 키우려면?	우리 아이의 꿈과 끼, 제대로 갖추려면?
초등 고학년	소통 공감하는 부모의 대화기술	바른 인성으로 자녀 행복 더하기	슬기로운 자녀의 안전한 생활습관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내 아이, 미래 인재로 키우려면?	아이의 꿈과 끼, 진로맞춤 설계
중학교	자녀와의 행복한 수다	인문학을 통한 중학생 인성교육	학교생활 119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법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창의성	자녀의 미래 설계하기
일반계고	고등학생 학부모의 후회 없는 부모역할	인문학을 통한 고등학생 인성교육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의 원천	미래사회를 향한 고등학생 자녀교육	진로직성에 맞춘 대학진학 전략
특성학교	자녀와 통하는 부모 되기	인문학을 통한 고등학생 인성교육	학교,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미래사회를 향한 고등학생 자녀교육	자녀의 미래와 직업세계의 이해
특수교육	자녀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감 높이기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생활습관과 태도	내 자녀와 함께 놀이로 하는 공부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사회 준비	내 자녀의 맞춤형 진로설계



시기별, 사안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

새 학급은 ‘여럿이 함께’ 하는 배움·성장의 공동체

새 학기 담임들은 할 일이 참 많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전달 사항을 나눠주고 또 수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정량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개인적이고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학기 초에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사회적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방임 논란까지 커지고 있어서 학기 초 학생들과의 진솔한 상담의 중요성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

아이들이 궁금하다

새 학기 자신이 맡게 될 학급의 목표와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주먹구구식 학급경영에서 탈피할 수 있다. 세부적인 학급규칙을 정하고 학급 1인 1역할과 학급행사, 체험활동, 학급회 조직 및 인화를 위한 활동계획 등에 대한 학기 단위, 1년 단위의 로드맵을 미리 작성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모든 학년 공통으로 학생의 인성 특성, 학업 특성, 진



로 특성 그리고 친구 관계와 가정 특이사항에 대한 기초 상담이 새 학년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때 학생들이 작성할 ‘자기소개서’나 ‘기초조사서’ 항목을 꼼꼼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관련 사이트에 견본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여 만들면 된다. 요즘에는 구글 문서도구를 이용하여 학생 관련 자료를 손쉽게 취합할 수 있다. 인적사항, 가족사항, 집의 경제적 형편과 환경, 건강 상태, 좋아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 흥미와 취미 그리고 장래 희망, 장점과 단점, 학원 및 과외 수강 현황, 교우관계, 고민거리, 담임선생님께 바라는 점 등을 꼼꼼히 기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도·생활지도

아이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개인적이고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물론 학생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선택이나 교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다.

특히,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동아리를 추천하여 동아리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선택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계획에 대한 상담까지 한다면 금상첨화다. 이처럼 개별 상담을 통해 교내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안내해 주면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다. 고입도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한 전형이 많으므로 학생들은 교내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사들은 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급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급회를 구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부장도 반장 선거처럼 부서별 공약과 부서별 활동계획을 발표한 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좋다. 학급회가 구성되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학급 자치가 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조기 등교 학생들을 위한 학급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해 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 아침 시간을 활용한 ‘멘토-멘티, 튜터-튜티’ 활동이 효과적이다. 가르치는 학생도 배우는 학생도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1, 학교생활 및 3년간의 로드맵 상담을...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관련 상담을 먼저 해야 한다. 학생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교우관계, 수업태도, 방과

후 시간 활용 등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학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3년간의 로드맵에 대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신입생은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을 전국연합학력평가 전에 안내해야 한다. 커리어넷과 지역별 진로진학정보센터의 무료진로적성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계열 선택 확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커리어넷은 회원가입 후에 ‘진로심리검사-심리검사-직업 적성·가치관·성숙도·흥미 검사’ 순으로 직접 해보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의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과 계열 선택 및 학과 등에 대한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적성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연수를 사전에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학급운영과 학생상담에 대한 연수도 한 번 이상 방학을 이용하여 받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 3학년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내용을 받아서 실질적인 진로·진학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겨울방학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고입 또는 대입과 관련하여 ‘교내 진로·진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 담임교사들은 교육청이나 지역별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진로·진학 연수를 여러 개 미리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덧붙여, 새 학년 학급 운영은 학급이 단지 학습을 위해 인위적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라는 점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해 본다. ㉠

‘잔소리’ 잘 하는 기술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요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면서 화를 냅니다.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가 이렇게 못되게 굴 때는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소리는 땅에 떨어지는 소리

엄마 심정이 무척 공감입니다. 많은 청소년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이지요.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도록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속이 상합니다. 귀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입이 아프고, 달라지지 않으니 화가 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귀가 아프고, 자꾸 잘못한다며 간섭을 받으니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자연히 사이가 나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전달해 아이들을 좋게 변화시키면서 관계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귀한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밝은 표정으로 눈 맞추기

어떻게 아이와 대화해야 하나요 묻는 부모님들께 저는 “인상부터 먼저 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찌푸린 얼굴과 걱정스런 표정을 하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기를 죽이고, 기운을 떨어뜨리는 눈빛과 표정으로 나를 보는 사람하고는 마주치기도 싫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먼저 밝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 주세요. ‘말이 아

닌 상호작용’이 먼저 편안해져야 ‘말로 하는 상호작용’도 잘 된답니다.

적의 말은 듣지 않는다

서로 사이가 나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마침 하려고 했다가도, 적이 하라고 시키면 자존심 때문에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와 같은 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이 말에 탄지를 걸거나,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는 부모를 적으로 느끼고 마음과 말을 닫아버립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부모 눈에 흰히 결론이 보이고,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을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일단, ‘아, 정말?’ ‘세상에’ 와 같은 추임새를 넣으면서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어떡하지?’ ‘아유 속상하겠다.’와 같은 아이 입장을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점차 아이들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얻고, 부모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아이 말을 잘 들어 주세요

딱히 해결책을 찾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가 옆에서 고민을 함께 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



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점점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변하고, 똑똑해지고, ‘잔소리’할 일이 줄어들게 되지요. 아이가 충분히 고민하기도 전에 해결책을 말해버리면 아이들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화를 내게 되고 행동은 개선이 안 되고 부모는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부모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웁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말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려 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은 잘 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아이들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더 잘 듣게 될 겁니다.

먼저 부담 없고 즐거운 대화와 칭찬을 많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부모를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도록, 일상생활에서 가볍고 부담 없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먼저 많이 나눠보세요.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평상시에 많이 나눠야, 부모가 진지하게 하는 말도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심각한 소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부터 하고, 별말 아닌 말에도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부모가 말만 했다 하면 자꾸 공부, 성적, 숙제, 장래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해



손성은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서울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생각과느낌 몸마음클리닉에서 아이들과 청소년,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고, 못 미더워하고, 압박감을 주면, 아이들은 점차 마음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이의 외모에 대한 칭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점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엄마 삶을 찾으세요

중2병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매니저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은 먹고 살고, 살림 꾸리기에 바빴고 자녀들의 일에 간섭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교와 학원 스케줄과 숙제를 챙기는 것이 본인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조금하고 불안합니다. 이제 아이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본인의 삶의 활력과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를 죽이는 소용도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한 숨 쉬기부터

무엇보다 꼭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걷고 뛰면서 터지는 속과 스트레스를 푸셔야 합니다. 댄스나 수영 등 부모님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보세요.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운동하기 어렵다는 부모님들께 저는 아침, 저녁으로 50미터를 숨을 헐떡일 정도로 웃으면서 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30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숨 운동이지만 삶을 바꿀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과 밝은 숨으로 밝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활력을 찾으신다면, 아이들에게 조금한 잔소리가 아니라 잘 전달되는 알맹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②



미국,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에 주목

2010년 10살 난 초등학생 아들과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다. 나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들은 영어를 배우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모자는 현지에서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계 이민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엄마’가 되었고 이는 학위는문의 주제를 다문화 교육으로 잡는 계기가 됐다. 나는 다문화 교육과 이민자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한편, 틈틈이 아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론과 현장을 연계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우리는 귀국했고 아들은 집 근처 중학교에 편입했다.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이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경험담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교육현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민자녀에 대한 섬세한 배려 눈길

아들이 한국의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와 ‘여기는 한국이니가 외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싹 잊으라’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 특성과 독

특한 경험을 부정하는 교사들의 동화주의(assimilation)에 대해 ‘문화적 폭력’이라 느끼며 슬하게 상처를 받는다.

미국은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유색인종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어 1967년 백인과 유색인종 간 결혼도 합법화 시키면서 다인종 다문화 정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에 발맞추어 이민자 문화와 흑인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백인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 가정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동화주의 언어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배경 학생들은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교사는 이 점을 숙지하고 학생의 행동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행동 방식일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한다. 문화 다양성을 교육 패러다임에 반영하면 다른 언어, 종교 및 문화를 비난하거나 동화주의적 관점으로 교정하려 들지 않는다. 해서, 교사



는 다문화학생에 대해 생활지도 측면에서 섬세하게 고려한다. 문화 인종적 배려 없이 어린 학생을 설부르게 지도하다가는 인종차별과 아동학대 등에 민감한 문화 환경에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아들이 편입한 중학교에는 중도입국 학생을 포함해 다문화 학생이 몇 명 있다. 아들은 “아디시(인도네시아계 학생)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수업을 못 알아듣고 시험점수도 낮다” 혹은 “김 앤드류(미국 태생 귀국학생)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결국 다시 미국으로 갔다”와 같은 말을 교사에게 들곤 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잘

하도록 도와줄 책무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아들은 ‘스르륵’ ‘영세상인’ ‘사색적’과 같은 단어의 뜻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아디시는 한국말을 몰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왜 그러냐”고 비난을 받았다.

문화 다양성이 다문화 교육의 근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출산율이 높지 않아도 이민 정책으로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녀에 대한 교육과 미국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국가적 과제인 셈이다. 미국은 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배경 학생들은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교사는 이 점을 숙지하고 학생의 행동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행동 방식일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한다.

사의 지위가 낮고 이직률이 높은 반면,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는 학생을 체벌할 수 없고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것조차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주류의 가치관과 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고 거부감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교사의 책무라고 규정한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으로 보자면 학습부진과 부적응은 학생의 탓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역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문화 다양성, 교사교육에 달렸다

그렇다면 미국 교사들은 어떻게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학생을 덜 비난하는 교육철학을 가지게 되었을까? 동화주의 입장을 버리고 문화 다양성을 교사교육에 적극 반영한 정책적 결과이다. 미국 예비교사들은 다문화 다언어 교육과정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인종 다양성이 높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우수한 교원이라 해도 준비가 부족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부터 다문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5년 만에 귀국한 아들이 한국학교를 마냥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학교보다 한국학교가 더 좋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미국학교는 학생들의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양하고 언어도 가지각색이다. 미국 다문화 교육은 백인 기득권 집단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지만 아직도 앵글로 색슨계 백인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독교가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고, 백인 영어가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니 낮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한국학교에 다닌다. 다문화 교육이 잘 정착해 있다는 미국에서도 유색인종 이민자녀들은 언어 인종적 차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미국은 다문화 학생과 주류학생 모두에게 평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교육시키고 있다. ㉠

새 학년, 새 학기 나만의 친구 사귀기 노하우

새 학년, 새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새로운 학급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나만의 친구 사귀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도록 권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교육현장의 의견을 명예기자들이 소개합니다.



“먹방으로 입과 마음을 열어라” 관계에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윤활유로 저는 ‘먹방’을 추천합니다. 달콤한 초콜릿으로 관계가 달달해지고, 따뜻한 우유로 서로의 마음이 노곤 노곤해지며, 아삭한 비스킷으로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을 해소해나갈 수 있거든요. 간식을 나누어 먹는 마음은 이미 넉넉함으로 따뜻해지고, 서로가 입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학기만 되면 우리 아이들 가방에도 간식을 채워주곤 한답니다.^^

김보람(31) / 학부모(독서치료강사)

가까이 있는 짝공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칭찬을 많이 하고 작년 반을 물어보아요. 그리고 원래 알았던 친구에게 소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최윤지(19) / 고등학생

제가 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짬은 <파티> 나 <반 청문회> 등의 단합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그간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또는 신변잡기 적이거나 시시콜콜한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등을 정하여 토론보다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이가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경원(31) / 교사

새 학기는 ‘금란지의(金蘭之誼)’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이좋은 친구끼리 마음을 합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다는 뜻의 아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말이지요. 새 학기가 되면 이러한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지금의 제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교로 진학을 앞둔 지금, 학교가 달라지더라도 기존 친구들과 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새 친구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금의 사귀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필요한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요? 현재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새 친구를 맞이하세요.

김성훈(16) / 중학생

담임선생님이 간단하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쓰게 한 뒤 벽면에 모두 붙이고, 비슷한 의견끼리 분류해서 의견에 대한 보조설명을 듣고 또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활발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새롭다고 느끼는 친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 걸 보면, 신학기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한술(44) / 여학원 원장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 학기에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무조건 운동장에 나갑니다. 모둠을 편성하여 아이들에게 키워드 미션(행복, 우정, 새 학기)을 주고 운동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키워드와 관련된 몸짓으로 사인을 찍으라고 합니다. 모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아이인지 금방 파악하더군요. 그리고 교실 내에서 스피드 게임도 하고 게임을 해야 금세 친해지는 것 같아요.

한은경(35) / 교사

새 학기는 기쁨과 설렘입니다. 새 친구, 선생님과 시작할 학교생활의 기대, 비슷한 취미와 적성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는 기쁨, 서로 다른 친구를 만나 양보하고 배려하며 알아가는 기쁨이 크지요. 이러한 기쁜 마음을 먼저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새 친구 사귀기 노하우라면, 이러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김은아(11) / 초등학생

요즘은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다고 정신과 병원이나 내과를 찾아오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부모님, 친구사이의 갈등 등 가정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급에서 하루에 2~3명씩 친구들 앞에 나와서 나의 고민이야기, 오늘의 기쁜 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위로 받고 싶은 이야기, 장기자랑 등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속 시원하게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기쁜 일, 슬픈 일도 함께 나눈다면, 같은 반 학생끼리 더 친해질 수 있고 교사 또한 학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40) / 의사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Tip 알아볼까요? 먼저 친구에게 인사해 보세요. 인사는 상대와의 첫 만남이고 첫인상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죠. 친구에게 예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리고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보여주세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서툴다면 먹을 것이라도 주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칭찬한다면 좀 더 친밀한 친구사이로 발전할 수 있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멋진 친구를 사귀어 보아요!

정봉화(47) / 교사

누군가와 새롭게 만나 알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 3초 만에 결정된다는 첫인상을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잘 남기기 위해서는 밝은 미소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잘 극복하고, 친구에게 밝은 미소로 다가가 말을 건네거나, 다가오는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설민영(19) / 고등학생

시작은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조금해지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사귀기에 있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은 ‘기억하기’입니다. 새로운 반,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급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때, 친구가 나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서 나를 불러준다면, 고맙고 호감이 갈 거예요. 이 기분을 기억하면서 내 짝공 친구부터, 앞자리 친구, 뒷자리 친구, 같이 청소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보는 거예요.^^

박수정(19) / 고등학생

새 학년 새 학기 낯설고 부끄럽지만 생존을 위하여 먼저 말 걸기! 같이 대화를 나누다보면 공통 분모도 찾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김수현(19) / 고등학생

- 새** 새 교실에서
- 학** 학년을 함께 보낼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를
- 기** 기다린다.
- 새** 새 얼굴마다 “안녕?”하고 인사하면,
- 친** 친구도 날 궁금해 하겠지?
- 구** 구면인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보자.

김말선(46) / 학부모

2016 명예

기자 출범

“발로 뛰며 생생한

교육소식 전하겠습니다”

2016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합격자 명단

강병희, 강지영, 곽초롱, 구영목, 김경민, 김광일, 김나영, 김말선, 김명선, 김미라, 김미선, 김민정, 김설한, 김세훈, 김영아, 김정백, 김정에, 김종우, 김지혜, 남보라, 문희영, 박미정, 박병준, 박선이, 박은정, 박은지, 박은희, 박준희, 박진희, 박향숙, 박현숙, 백 희, 서미자, 서영식, 손균옥, 신재일, 신현태, 양묘생, 양지훈, 옥문태,

유철민, 이명숙, 이미경, 이병구, 이병화, 이선영, 이성수, 이연자, 이윤호, 이은주, 이재영, 이하성, 임정은, 조원표, 채일동, 최병권, 하헌우, 한명숙, 한미담, 한은경, 한주희, 홍성주, 홍정은, 황유리, 황형준
이상 65명 축하드립니다.

학교나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배움중심수업을 소개하고 좀 더 좋은 수업, 좀 더 열정적인 교사나 인물들을 재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마음이 다치고 힘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고, 소개해주는 활동, 현장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좋은 글이나 사진들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통합교육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위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고 분류되는 이들이 일선현장에서 올곧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다소 소외된 지역이지만 산골구석구석 찾아가서 작은 학교의 이야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올바른 입시 제도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고 그와 더불어 진로와 진학이 연결되는 대학입학 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사들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러 교육정책 관련 학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개인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 공유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행복한 교육의 명예기자단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사범대 학생의 입장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과 정보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의 내용들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느낀 교육 현장의 모습을 전달할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현상을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서울 하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대로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 돈다

「성북동 비둘기」中 - 김광섭 作



01 서울 성곽에서 바라 본 북정마을

02 도보여행을 위한 표지판

03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소재로 한 벽화와
조형물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04 마을 초입 노인정 앞 북정마을 그림안내판

02



04

서울 성곽 바로 아래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집들을 종종
보게 된다. 흔히 달동네라고 부르는데, 북성마을은 서울 사대
문 안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곳이다. 숙정문과 혜
화문 사이 한양도성 백악 구간 초입에 위치한 이곳은 1969
년 김광석 시인이 발표한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곳으
로도 유명하다.

1960년대 산업화로 인한 도시 개발로 본래 살던 터전을
잃은 달동네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 작가가 비둘기로 비유
한 이들의 삶터는 아직도 1960~70년대 골목길 풍경을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비의 대상
이 됐었지만, 지금은 한양도성과 더불어 오랜 세월 누적된
주민들의 삶이 살아 있는 생활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주목받
고 있는 곳이다.



일상의 심포

1960~70년대 골목길 풍경 그대로

원래 성북동 일대는 조선 후기 왕을 호위하는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이 자리하던 곳으로 당시 나라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모집해 정착시킨 마을이다. 그러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과 도시 노동자들이 모여 현재의 마을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금은 과거 물길이나 지나는 원형 도로를 따라 500가구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리어카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다니기 힘든 거리였지만, 1985년 2차에 걸쳐 마을 중심을 둘러싼 소방도로를 준공했다. 당시 골목골목 있던 집들이 철거되며 반쯤 잘리거나 한쪽 지붕이 없는 집들의 잔재를 도로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성북03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북정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북정카페'를 만난다. 지금은 사라진 길 건너 북정미술관에 있던 사진이 카페로 옮겨오면서 마을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대를 이어 살거나 4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들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은 종종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기 일쑤다. 카페 뒤로는 북정마을과 오랜 세월을 보낸 1인 이발소가 옛 정취를 물씬 풍긴다.

비둘기를 소재로 한 벽화와 조형물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012년 마을 공터에 조성한 비둘기공원에는 김광섭 시인의 시도 걸려 있다. 개발로 인한 아픔이 깃든 곳이지만, 지금도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4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돼 왔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주민 간 갈등으로 대자보가 붙다 떼어진 자국들이 도로변 축대에 가득하다. 지금은 마을공동체로 거듭나며 2013년에는 '서울시 우수마을 공동체'에 선정될 정도로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한양도성과 지형이 일체화된 독특한 경관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22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람의 살가운 온기가 가득한 이곳에 매력을 느낀 젊은 예술가와 청년들의 작업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설치·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이순주 작가의 작업실 '공간 살



08

타일로 멋을 낸 마을 공중화장실



09



10

11

05 06 마을 주민의 수다 공간 '북정 카페'. 길 건너 북정미술관이 사라지면서 마을 주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페로 옮겨 왔다.

07 2012년 마을축제 때 주민들이 조성한 비둘기 공원

08 1960~70년대 골목길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북정마을

09 11 길상사는 생각을 비우고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10 종교간 화해의 염원이 담겨 있는 길상사 관음보살상. 법정 스님의 부탁으로 천주교 신자인 최충태 조각가가 만든 석상이다.

구'는 갤러리, 레지던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 초입 그림으로 그린 마을지도로 시작으로 원형 도로를 따라 30~40분간 산책 겸 걸으면 이곳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심 속 참선의 공간, 길상사

북정미술관에서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집 사이에서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자택 '심우장'이 있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주위의 도움으로 마련된 이곳에는 그가 심은 향나무를 통해 독립운동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을 되새길 수 있다.

성북동 뒷골목을 사이에 두고 숨어 있는 역사·문화지로 길상사도 빼놓을 수 없다. 성북동 종턱에 위치한 길상사는 예전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3대 요정집이었던 대원각이 절로 탈바꿈한 곳이다. 시인 백석과 애뜻한 정을 나누던 기생이자 대원각 주인인 길상화(김영한) 여사가 7,000여 평의 대지와 건물 40여 동 등 1천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면서 1997년 사찰로 거듭났다. 경내에는 길상화 공덕비와 무소유를 이야기한 법정스님

의 유품도 볼 수 있다.

절이 간직한 남다른 사연 때문에 길상사는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사랑받는 공간이다. 평일 오전에도 생각을 비우고 명상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누구나 참선할 수 있는 '길상선원'과 '침묵의 집'은 물론, 상설시민선방도 마련돼 있다. 매월 넷째 주 토~일요일에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다. ㉠



성북동 일대 역사·문화탐방 도보여행

서울시는 길상사를 시작으로 성북동 일대의 역사·문화의 흔적을 찾아가는 도보여행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평일 2회 주말 3회에 걸쳐 운영된다. 관광하기 3일전 인터넷(<http://korean.visitseoul.net>)과 모바일 웹(korean.visitseoul.net)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가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 문화, 생태복원 등 총 23개 도보여행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보코스

마을버스 성북2번 탑승 - 길상사 - 선잠단지 - 최순우옛집 - 이종석별장 - 심우장 - 이태준가옥(수연산방)

도보시간

2시간~3시간 소요

☎문의 02)6925-0777

<참고자료>

북정마을 지도, 성북문화재단·협동조합 성북신나, 2015
『도성과 마을1』, 서울역사박물관, 2015

NEWS BRIEFING

자유학기제 왜곡 광고 자제 학원총연합회에 당부



“자유학기에 학부모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마케팅을 자제하겠습니다”(학원관계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준식 부총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인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여러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학원총연합회가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달라.”

며 “학원 스스로가 자유학기제에 왜곡하는 과장광고를 자제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영업마케팅에 대한 자율 규제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부는 올 한해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약용하여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처동 등 학원밀집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방송중학교 첫 졸업식 열려... 배움엔 나이가 없다

늦은 나이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이모(80)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에게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장은 그 누구보다 특별했다.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배움에 대한 갈증은 항상 가슴 한 구석에 놓여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부인 이씨와 함께 방송중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공부하는 늦깎이 학우들이 힘이 되었다. 결국 개근상을 받으며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전모씨는 부인과 여동생과 함께 대구고 부설 방송중에 영광의 졸업식을 맞았다.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영어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보람이다. 졸업 후에는 방송고로 진학해 더욱 학구열을 불태울 계획이다.

지난 2월 13, 14일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등 3개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제1회 졸업식이 열렸다.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13년부터 설립

된 방송통신중학교에서 그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201명의 졸업생 중 50~70대 늦깎이 학생은 145명으로 나타났다. 방송중이 고령자들의 배움의 기회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부는 '16년 3월 방송중 8개교를 추가로 개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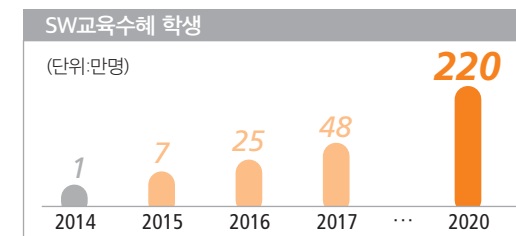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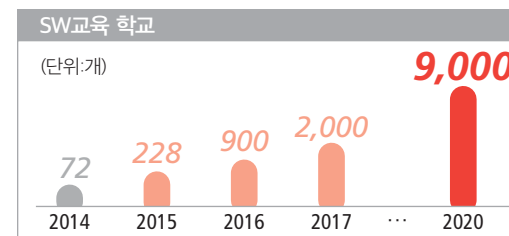
선도학교 확대로 소프트웨어교육 본격 시작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682개교를 신규로 선정한다. 지난해 교육부 연구학교로 선정된 68개교와 미래부 선도학교 150개교를 포함하면 올해 총 900개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와 미래부는 예산을 분담하고 관리·운영 또

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초·중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학교 내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지침」의 시수 운영 방안을 따르는 학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학교 및 수혜학생 전망



행복한 교육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에서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편집인 대변인 이승복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연구사 곽은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5 자 만 담

“애들아, ○○○○○○(한) 우리 반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떠셨나요? 이맘때면 새 학년이 기쁘기도 하지만 낯선 환경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올해 멋진 학급에 도전해 보세요. 재치를 담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5자만담 당첨자

2월호 주제 : 사교육은 ○○○○○(한) 존재이다.

김민준(양날의검인), 손나영(나만더먼저), 정지선(슬픈공회전), 박현숙(채워도부족), 김은진(등골브레커) 님 축하드립니다.

HI-PASS [High-school with Passionate, Able, Smart & Strong (Students)]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똑똑하고 건강한 학생을 길러내는 고등학교’라는 의미
 → ‘소질과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선택하여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선취업 후진학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는 의미

거침없이 HI-PASS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함께 합니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으로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16~)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학생, 학부모,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모든 정보는 **HIFIVE**에서 만나세요
 홈페이지 <http://www.hifive.go.kr> 모바일용 <http://m.hifive.go.kr>

